



2024. 9. 7. (토) 907
강남일대 기후정의행진

함께 행진합니다!
- 기후재난과 기후 부당성에 맞서 우리 모두 행동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 온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막고, 탈핵·탈화석연료·공공재생유·지전환을 향해
- 신공항·국립공원(영남권·추석대개항) 사업을 막고, 생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일정
13:00 ~ 14:30 (1시간 30분) | 사전부스
15:00 ~ 16:00 (1시간) | 본 집회
16:00 ~ | 행진과 마무리

추진에 가입하기 | 조직에 참여/연계 가입

자세한 행진 정보: action4climatejustice.kr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한국YWCA

2024 SUMMER 06+07+08 Vol.590

기획

비평화 시대, 평화를 말하다

세계적인 비평화, 분쟁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2024 YWCA 피스 포럼

평화, 현장 속으로

7.27 한반도평화행동

무기를 내리고 대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성평등

교제폭력, 자세히 알아야
예방할 수 있는 범죄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다큐멘터리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사)강릉 033.651.1385	(사)대전 042.254.3035	(사)속초 033.635.3523	(사)의정부 031.853.6332	(사)춘천 033.254.4878
(사)거제 055.682.4950	(사)동해 033.531.3007	(사)수원 031.252.5111	(사)익산 063.857.8910	(사)충주 043.848.3240
(사)고양 031.919.4040	(사)마산 055.246.8746	(사)순천 061.744.7990	(사)인천 032.424.0524	(사)통영 055.646.2547
(사)광양 061.762.0012	(사)목포 061.242.1611	(사)안동 054.854.5481	(사)전주 063.224.5501	(사)파주 031.945.5998
(사)광주 062.609.1300	(사)부산 051.441.2221	(사)안산 031.483.6536	(사)제주 064.711.8322	(사)평택 031.651.7701
(사)군산 063.462.4491	(사)부천 032.668.970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031.455.2700	(사)제천 043.645.2580	(사)포항 054.274.4444
(사)김해 055.332.6000	(사)사천 055.833.2344	(사)양산 055.367.1144	(사)진주 055.755.3463	(사)하남 031.793.7771
(사)남양주 031.577.7762	(사)서귀포 064.762.1400	(사)여수 061.654.2161	(사)진해 055.542.0020	
(사)남원 063.632.7002	(사)서울 02.3705.6000	(사)울산 052.247.3520	(사)창원 055.283.9488	
(사)논산 041.736.7393	(사)성남 031.708.2503	(사)원주 033.742.6090	(사)천안 041.575.0961	
(사)대구 053.652.0070	(사)세종 044.865.2432		(사)청주 043.265.3700	



www.ywca.or.kr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 1922 장학금은
청년, 청소년 장학금과
YWCA 청(소)년 사업에 지원됩니다.
한국YWCA 청년운동은
한국YWCA 100년을 넘어
깨어 있는 청년성과 시대의식으로 연대하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온라인 모금함에서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한국YWCA연합회



CONTENTS

Vol.590
2024 SUMMER 06+07+08
www.ywca.or.kr

한국YWCA 목적문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9월~11월 주요 일정

9월 2일	9월 월례아침기도회
9월 7일	907 기후정의행진
9월 21일	월성해발전소 이주대책위농성 10년 집회
10월 1일	10월 월례아침기도회
10월 11일	제5차 탈핵기후생명 온라인 전국회의
10월 22~23일	2024 YWCA 확대정책협의회
11월 19일	제2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11월 27일	한국YWCA 주관 수요시위

제60권 제3호 통권 590호
2024년 8월 20일 발행(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조은영 편집인 구정혜
편집 최수산나 이주영 김가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AM10 DESIGN 인쇄 지경문화사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 5천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COVER STORY

7.27 한반도 평화행동의 날 평화대회는 공
연과 연대사 등의 행사 진행 이후, 평화의
중 앙 광장에서 출발하여 통일대교 앞까지
행진했다. 연합회 조은영 회장은 현수막을
들고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를 외치며 평화에 대한 염원의 목소
리를 높였다. (@한반도평화행동)



02
이달의 생각
함께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은영

03
말씀 묵상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들
최규희

04
기획 | 비평화 시대, 평화를 말하다 1
세계적인 비평화, 분쟁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윤보영

08
기획 | 비평화 시대, 평화를 말하다 2
2024 YWCA 피스 포럼
고마음

11
탈핵기후생명
원전 최강국 정책에 밀린 송전망 문제
이현석

14
소비자운동
필수 의료 부족,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우선 해결되어야
안정희

17
성평등
교제폭력, 자세히 알아야 예방할 수 있는 범죄
허민숙

20
평화, 현장 속으로
무기를 멈추고 대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편집실

24
현장
2024 Y-틴 전국회원대회
청소년 Y-틴, 함께! 위로와 용기!
편집실

27
기후정의 아카데미
대학·청년YWCA 기후정의아카데미
지구업고 튀어~!
손자수

30
중·인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현장워크숍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유에스더

33
지역 탈핵 현장을 찾아
밀양 행정대집행 10주년 집회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편집실

36
지역과 함께
안산YWCA 젠더 정책
물 한 방울도 정치, 정치는 어렵지 않다
김가희

39
교육 현장을 찾아
2024 찾아가는 회원YWCA 이사교육
정서연

42
청년토크
'연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대학·청년YWCA

44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다큐멘터리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
이윤숙

46
연합회 소식

53
회원YWCA 소식

“함께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으로 더위도 너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정말 기후가 ‘위기’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인류가 생존 가능할까,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할까’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 지진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은 어느 한 국가 예외없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진정 글로벌 이슈임을 깨닫게 됩니다.



YWCA는 10여 년 전부터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중점운동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탈핵기후생명운동 뿐 아니라 돌아켜보면 Y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동을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아나바다운동은 정말로 훌륭한 지속가능성 운동의 대표적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중심의 EM사용 운동, EM흙공을 통한 지역하천 살리기 운동, 청소년 및 시민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환경살리기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공은 결국 회원의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서로와 지구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핵기후생명운동은 단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는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문제에 가장 적게 기여했지만 그 결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

라고 하는데, 이 책임에는 심오한 도덕적 중요성이 따릅니다. 인류가 태초부터 땅을 돌보는 일을 맡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보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자원의 현명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잠언 31장 8-9절에서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말하며 모든 궁핍한 자의 권리를 위하여 말하라. 공정하게 말하고 판단하십시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기후 위기는 단

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보다 심오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환경 파괴의 결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개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정의롭고 공평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

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미래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가 함께 사용할 때, 즉 포용적이고 다양하며 끈질기게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을 지속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운동은 힘들고, 진전은 더디게 보일 수 있으며, 장애물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내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결합되면 더 강한 지구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회원들의 힘을 모아 꾸준히 실천하는 YWCA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들

이사야 58장 9절 하반기~12절

이사야 58장은 소위 ‘제3이사야’ 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의 세 번째 부분에 담긴 말씀입니다. 구약학자인 우택주 교수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예언서의 사회정치적 성격에 깊은 통찰을 담은 그의 『새로운 예언서 개론』에서 이사야서 1~39장은 황금시대, 즉 8세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시대의 말씀으로 분류하고, 이사야 40~55장은 6세기 식민 통치하의 예언으로, 이사야 56~66장은 민족재건기의 예언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56~66장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시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지키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전하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주어진다든 것을 염두에 두면 이사야서 말씀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자신들의 종교적 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의 형편을 이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이들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주십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이웃, 동포를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

는 참된 금식을 한다면, ‘빛을 회복하고, 급속하게 치료가 될 것이다!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만일’이라는 조건절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멩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를 향해 마음을 열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면! ‘어둠이 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회적 자비와 긍휼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항상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 댄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이 대거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사람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이어진 서해 해상 사격 훈련 등 ‘힘에 의한 평화’라는 어처구니없는 구호로 전쟁의 위협만 커지는 시기에, 파괴된 기초를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는 한국YWCA연합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 안에, 또 남북간에 사회적 자비와 긍휼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파괴된 기초인 분단체제를 해소하고 갈라진 성벽을 새롭게 건설하는 일꾼들이 길러지기를 간구합니다.

세계적인 비평화, 분쟁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상처받을 가능성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고통 받는 타인이 겪는 괴로움으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고통 받는 이웃을 지켜보는 내가 상처 받는 까닭은 나의 감성이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마시는 한 잔의 물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 행복을 주는 것처럼 고통 받는 이웃의 가슴을 파고드는 울음 역시 내 감성에 상처를 준다.¹ 생각해보자. 안전하고 따뜻한 집 안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 노크를 한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린 아이를 안은 여성.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 굶주리고 다친 누군가. 우리 그때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레비나스는 묻는 것이다. 안전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있는 당신, 여전히 안전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가자지구는 아이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벌써 1년이 넘었다.² 아빠가 출생 신고 하러 간 사이 폭격에 숨진 생후 3일 된 쌍둥이와 어머니의 사진, 영상들이 온 지구를 떠돈다.³ 울고, 멍개지고, 죽는 무고한 아이들. 세상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구한 존재의 무참한 죽음이 담긴 사진을 보는 우리는 안온한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아이의 죽음은 그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관자가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 역시 전쟁 다발의 상황에 놓여있음을 자각하게 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 널려있는 평화를 흔드는 상황을 감각하는 것이다.

일상 속의 전쟁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이해하면 휴전 이후 한반도는 대체적으로 평화롭다. 그러나 폭력이 잠재해 있는 그릇된 평화로 이해하면 한반도는 평화로웠던 적이 없다. 정전 이후 한반도 전역에서 특히 DMZ 안팎은 쉬지 않고 외부로부터 무기를 도입해왔고, 내부에서도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해왔다. 그 결과 한반도는 군사력이 고도로 집중된 지역이 되었다. 그렇다면 군사력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가?

2018년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드디어 의견을 모으는 것 같은 장면 이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는 드라마가 연출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은 점점 더욱 밀착하고 남한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한반도에서 종전과 평화체제를 둘러싼 논의들은 그 힘을 잃은 지 오래고 대신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의 다음은 우리가 될 것을 자처라도 하듯 한반

도에는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고, 언제라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뉴스가 우리 일상을 둘러싸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더는 동족의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했다. 2024년 1월에도 재차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고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 말했다. 남한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8.15경축사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 아직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것일까?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 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일까?⁴ 확장은 어떤 확장을 의미하는 것일까? 북한은 이 연설을 어떻게 해석할까? 남북은 짧게 대화하고 길게 단절되어 왔다.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오늘 그동안 주고받은 노력과 약속이 허무하게도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미중 갈등의 한복판을 자처하고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은 통일지향적 특수관계로 상정된다. 그러나 대체 어떤 통일? 어떤 확장?

전쟁과 평화

어쩌면 평화는 한반도에서 사치재일지도 모른다. 남북관계는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정치적 수요에 맞춰 나쁘게도, 좋게도 변동해도 좋은 것쯤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를 값으로 따질 수 없듯이 평화 역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도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비둘기를 보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비

+++

1 에마뉘엘 레비나스 지음, 문성원 옮김,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 (서울: 그린비, 2021).

2 홍석재, “아이들의 무덤된 가자. 서방이 하마스 2.0을 만들고 있다” 『한겨레』, 2023.11.8.

3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 7일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4만 명 가까운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으며 이중 어린이는 신생아 115명을 포함해 1만 650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김주영, “참혹한 가자지구. 출생신고 하는 새 생후 3일 쌍둥이와 엄마 숨져,” 『TV조선』, 2024.8.14.

4 윤석열,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2024.8.15, (URL: 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LA1AttyE)

돌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작은 비둘기 한 마리도 먹고, 자고,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방주에서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9년 피카소는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그리며 “나는 죽음에 맞서 생명을, 전쟁에 맞서 평화를 지지합니다.”라고 말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총체적인 삶의 조건, 바로 평화이다. 평화는 낭만의 언어가 아니라 살 수 있음의 언어인 것이다. 그러나 평화를 흐트러뜨리는 언사는 연탄재 차듯 얼마나 쉽게 내뿜어지는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을 한 사이지만 얼마든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그것이 더 나은 현실을 가져온다고 가르쳐준다. 폭력의 언어는 내뿜어지고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개인의 마음과 몸에서부터 감정과 다양한 사회집단, 국가 그리고 국제관계, 생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함께 사는 서로를 존중하며 또한 공감하는 삶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한다. 평범한 날들로 알고 무심히 살아가는 매일은 영구 전쟁상태이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운명처럼 받아들인지도 모른다. 세계의 시선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다음은 한반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아직 전쟁을 끝맺음하지 못한 채 군사주의라는 폭력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게 내버려 두는데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한 채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안전의 위계

UNDP(유엔개발계획)는 군사력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국가안보의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새로운 안보의 패러다임을 제안한 바 있다. 주로 ‘국가’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안보’는 ‘안전보장’을 줄인 말이다. 누구의 ‘안전보장’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의 중심에는 ‘개인’의 ‘안전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군사력에 방점을 두고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국가’, ‘안전보장’보다 생명과 삶, 인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인간안보’의 패러다임이다. 개인이 갑작스럽고 유해한 혼란으로부터 보호받고, 기근과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함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개념으

로 전환된 것이다. 개인의 안전과 행복의 보장을 논의한 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안보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경제적 안전	• 개인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식량 안전	• 모든 사람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 안전	• 질병이나 건강하지 못한 생활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받아야 한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의료환경과 보험의 격차가 심각함 •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에 비해 보건 안보의 위험이 크다.
환경 안전	• 자연환경의 파괴, 고갈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개발도상국은 깨끗한 식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선진국은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있다.
개인적 안전	• 국가로부터의 폭력, 전쟁으로부터의 폭력, 범죄, 아동 학대와 같은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공동체 안전	• 문화적 다양성의 파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압제적인 전통 관습 여성에 대한 가혹한 대우, 소수민족, 원주민, 이주민, 피난자에 대한 차별, 집단 반란과 군사 갈등으로부터의 안전
정치적 안전	• 사람은 사회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한다.
사이버 안전	•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인간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불법유해 정보,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참조

인간안보 논의는 개인이 자신의 생존, 존엄, 생계를 지킬 수 있는 버팀대를 주는 시스템을 창조해야 함을 강조한다. 인간안보의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국가에게 있다. 위기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 약한 구조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저마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가자지구가 왜 어린이의 무덤으로 평가 받고 있는가? 2차 세계대전에서 민간인 피해가 컸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각자가 속한 사회가 겪는 불안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또한 자신이 위치한 지위에 따라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위기는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불안을 강하게 증폭시킨다. 그리고 각



사람이 위기 이전부터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구조 속에 있었는지의 문제를 거울처럼 드러내어 준다. 위기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위기의 기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 직업 유지와 상관없이 이미 경제적 여건이 마련된 사람, 전업의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겪는 불안은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 취약한 산업,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겪는 불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염병 때문에 위기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불안정한 위치에 서있었던 사람부터, 약한 순서대로 위기 앞에 섰다. 환자, 청년, 여성, 대면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종 종사자,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의 생존이 위기 앞에 서는 것이다. 평화는 반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서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생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여성의 노력

평화를 단순히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만 바라보면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증강해

야 한다는 국가논리에 포섭되고 말지만, 생존을 위한 권리로 바라보면 전쟁이라는 위기를 가져올 체제는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남성들은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를 독점한 채 결국 실패했다. 여성들은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국익을 위해 파병할 수밖에 없다는 설득으로 국가의 동원체제 안에 포섭하려는 논리를 반박하며 반전과 평화를 요구해 왔다. 우리 여성의 평화운동은 90년대 중반부터 생성되어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략 등이 일어난 이후 계속되어 왔다. 한국 YWCA를 비롯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여성네트워크>, <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 등은 시기마다 관계를 맺고 연합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내었고 이것은 한반도라는 공간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자각은 그곳이 다른 나라여도 마찬가지라는 당연하고도 절실한 요구로 연결되어 국가와 민족의 경계 밖으로 자신의 위치를 재구성하며 자신이 그 어디에 있던 경제적 이익, 자국 중심적인 이익과 상관없이 전쟁으로 피해 입을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어 왔다. 앞으로 더 침착하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손을 뻗어 연대해야 한다. 어차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 기획 |
비평화 시대 평화를 말하다 ②
+
고마움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2024 YWCA 피스 포럼

YWCA의 자원활동가 및 실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YWCA Peace Forum(이하, 피스 포럼)은 한국YWCA 2024~2025 운동정책에 기반을 두어 지역특화운동인 평화·통일운동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활동가들의 평화감수성을 향상하여 평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총 12개 회원YWCA(고양, 광주, 남원, 대전, 부천, 서울, 수원, 순천, 안산, 인천, 청주, 파주) 및 연합회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으며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2024년 6월 5일과 7월 17일, 총 2회의 피스 포럼이 진행되었다.

1982년 전국 정오기도회 '사랑과 평화의 일꾼으로 삼으소서'를 시작으로 한국YWCA는 지난 40여 년간 평화통일운동을 지속해왔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을 비롯하여 평화활동가를 양성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길 위의 평화포럼',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통하여 산을 오르며 한반도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와 평화의 길을 다짐해왔다. 그러나 한국전쟁 정전 71년을 맞은 2024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모든 기구가 폐지되어 남북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지난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재가되어 9.19남북 군사합의서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우리를 주적이라 부르는 북한을 향해 평화의 메세지가 아닌 적대의 메시지를 담은 방송과 전단을 보내는 상황 속에 평화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YWCA가 "여성과 함께, 평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어떤 운동을 지속해야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피스 포럼을 기획하였다. 1차 피스 포럼은 <왜 여성이 평화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김성경 한국YWCA연합회 국제·평화위원회 위원장의 강연과 한국YWCA 평화통일운동 사례공유, Peace Building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성경 위원장은 주제 강의를 통해 여성주의 관점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전쟁과 제주4.3항쟁을 통해 폭력과 전쟁의 희생자인 여성의 위치에 대해 자각하고 분단체제와 가부장제의 관계성을 통해 남과 북의 여성들이 분단의 맥락에서 이중적 착취에 노출되어 있음을 꼬집었다. 김성경 위원장은 강의 말미에 "계층, 계급, 지역, 젠더가 모두 나뉘어져 있는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의 삶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삶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평화의 감각인 '연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진행된 YWCA 평화·통일운동 사례 공유를 통해 YWCA 평화·통일운동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합회 최수산나 국장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그러나 지속

성을 갖고 다각적 영역과 다층적 연대로 평화·통일운동을 확산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1차 Peace Building 워크숍은 1시간 여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총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번째 질문인 '내가 평화를 느끼는 순간은?'에 대해 참가자들 중 일부는 '평화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다른 누군가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청소년들에게 어떤 평화를 전해줘야 고민할 때' 등 평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두 번째 질문인 '나에게 평화란?'에 대하여는 평화란 '평생에 걸쳐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평화의 반대는 불안'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질문인 '지금, 여기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평화운동은?'에 대한 답으로는 DMZ 평화순례단 만들기, 침묵으로 함께하는 영성순례, 비폭력 대화하기, 혐오문화를 없애고 청소년 대상 평화교육 실시, 구호나 노래로 평화구현하기, 해외 평화순례길까지 이어지는 통일 만보 걷기, 여성주체로 전국YWCA 각 지역별로 릴레이 평화운동 진행하기, 서로 나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노래 만들기를 비롯하여 전국순례를 진행하며 평화운동 브이로그 찍기 등 다양한 평화운동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스 포럼 2회차는 <우리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이성숙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팀장이 주제 강연을 진행하고 회원YWCA 평화통일운동 사례공유, Peace

Building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성숙 팀장은 강의를 통해 평화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인지하는 현실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평화를 나와 상관있는 일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 어린이어깨동무에서 진행하는 '우리 곁의 분단을 만나다, Peace Road'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일상 속에 숨겨진 분단의 흔적 속에서 평화와의 연결점을 찾는 활동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더불어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YWCA가 각 지역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민들과 함께 일상 속 분단을 만나는 활동을 진행하며 차별적 콘텐츠를 보편적 콘텐츠로 확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평화활동을 이어가는 활동가들이 연대하고 상호 지원을 통해 고립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회원YWCA 평화통일운동 사례공유>를 통해 서울YWCA 사회운동국 양진화 부장은 청년평화통일 기획단 'Peace Talk Talk', 평화리더십캠프, 평화아카데미 등 서울YWCA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서울YWCA는 청소년과 청년의 통일 필요성,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일상 속 구조적, 문화적 측면의 평화개념으로 평화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평화통일 프로그램(교육, 활동)을 기획하는 청년평화통일 기획단 'Peace Talk Talk'은 2024년 '국제사회에서의 청년, 여성의 역할과 참여의 중



원전 최강국 정책에 밀린 송전망 문제



요성'에 가치를 두고 월 1회 청년통일연구모임과 평화통일리더양성교육, 현장중심 비전트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부천YWCA의 임행심 사무총장 역시 '부천청년평화포럼'의 사례를 통해 청년이 주도하여 진행되는 부천YWCA의 평화·통일 운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부천YWCA는 지난 2023년 평화를 바라지만, 정착 평화에 대해서는 막연한 부천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평화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고 의식을 고취하고자 4회에 걸친 부천청년평화포럼을 개최하였고 청년들의 발제와 강의 및 토의 내용을 엮어 책으로 발간하였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부천YWCA는 새롭게 대학·청년Y협회를 창립하여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평화의식을 확산하고과 종전을 위한 평화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1회차와 마찬가지로 1시간 남짓 진행된 Peace Building 워크숍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나누었다. 먼저, '지금 우리YWCA의 평화운동은?'을 통해 각 회원YWCA의 평화통일운동의 현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 '앞으로 우리YWCA의 평화운동은?'을 통해 현재 실행 가능한 평화통일운동에 대해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참가자들을 통해 평소 YWCA의 활동가들이 평화

통일운동에 대해 깊은 고민을 지속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스 포럼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5글자로 짧은 소감을 나누었다. '내가할일은?', '자주모이자', '내일기대대', '환기과울림', '평화는어렵', '내일도평화', '놀라운와이' 등 참가자들의 소감은 짧지만 확실하게 YWCA의 평화통일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하고 있다. 평화를 말하는 것,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모임을 통해 나이, 출신, 배경을 넘어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한다. 종전이 아닌 정전 상황의 한반도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미얀마,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더 나아지기보다 더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YWCA 활동가로서 평화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꿈꾸는 평화를 그려보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이 주체가 되어 평화운동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염원의 표현이자 지역사회에서 YWCA가 여성들과 함께, 여성이 주체가 되는 평화운동을 지속하겠다는 결의의 행동이다. 

MZ는 DMZ가 궁금해

- 목적 대상 : 청(소)년이 주체로 일상에서 평화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현장 프로젝트
- 기간 : 종전이 될 때까지
- 기대효과 : 평화의 중요성, 필요성 깨닫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의 기여
- 필요한 것 : 주체가 될 아이들, 그들/우리의 관심, 물적 자원, 실무자들을 위한 이력 자리

피스 인 OO

- 목적 : 보다 쉽게 평화 알리기
- 대상 : 전국민(지역 주민)
- 기간 : 3개월을 시작으로 평생으로 확대
- 기대효과 : 지역 역사와 평화를 알리고 평화운동을 선도하는 Y 각인
- 필요한 것 : 예산

우리 YWCA 평화운동 : 평화통일교육

- 목적 : 평화 감수성 향상, 평화통일 바로 알기
- 대상 : 청소년(청년), 시민
- 기간 : 6~8월(집중)
- 기대효과 : 평화 공감대형성
- 필요한 것 : 강사, 내부자원

피스빌딩 워크숍 “앞으로 우리 YWCA의 평화 운동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정책

윤석열 정부의 전력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전 최강국 건설’로 요약된다.

선거 운동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문제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이라고 비판했기에 ‘원전 최강국 건설’은 단순한 에너지정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발언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민생 도탄’, ‘이념 매몰’, ‘무모하다’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 ‘원전 최강국 건설’은 이를 바로잡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설명되었다.

그 결과 핵산업계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경북 울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했고,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10여 기의 핵발전소 수명을 모두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에 대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고 위험성, 핵폐기물 문제 등 핵발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특히 핵발전소가 장기간 운영되면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큰 부담과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기에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송전망 문제이다. 핵발전소도 다른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핵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대규모 발전소는 환경문제, 땅값 등을 고려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설치되는데, 이는 전력 수요지와 공급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 결국 수요지와 공급지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필요한데, 최근 이 문제가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과 전력 포화

2023년 1월, 한전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3전시장과 CJ 라이프시티 건설 부지에 2029년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는 ‘전력공급 유예 통보’를 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 의무’를 지니는 전기판매사업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도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수도권 전력망 포화로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원거리 대량 송전’ 중심이었다. 충남의 당진, 보령, 태안 등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북 울진과 부산·울산의 핵발전소처럼 10여 기 안팎의 발전소 단지를 구성하고 이들 단지에서 대도시로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2024년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7%에 달한다.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산업시설 역시 수도권에 많이 있어서 전체 전력 판매량의 39.2%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반면 발전 시설은 많지 않아서 수도권 발전량은 전체의 24.3%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발전량 대비 전력 판매량을 일컫는 전력 자급률이 8.9%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91.1%는 외지에서 생산된 전기이다. 앞서 언급한 경기도도 전력 자급률은 61.0%로 서울보다 나은 편이지만,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아서 많은 전력을 외지에서 가져와야 한다. 인천지역의 경우,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6기가 가동 중이어서 전력 자급률이 212.8%

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 탈석탄 계획이 추진될 때 지금처럼 높은 전력 자급률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전력망이 부족한 문제는 수요자 측에만 있지 않다. 최근 동해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준공되었다. GS 동해 전력, 강릉 에코파워, 삼척 블루파워, 삼척 빛드림 같은 발전소 등이다. 최근 이들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력을 생산해도 이를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한전은 2008년 동해안~신가평 구간 송전선로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 투쟁 이후 전국적으로 송전선로 반대운동이 벌어져서 765kV 교류 송전선로를 500kV 직류 송전선로로 바꾸어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 또한 계속 지체되어 작년 연말이나 상징적으로 1개의 송전 철탑을 완공해 놓은 상황이다. 한전은 2026년까지는 완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역주민들의 취소소송과 반대운동이 진행되고 있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과거에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결정권은 무시되었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 결정 과정과 절차 등이 보완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건설 공사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되었다. 또 발전소 건설 계획과 송전망 건설 계획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지만, 이들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발전소는 건설되었으나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원거리 대량 송전'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단체는 송전선로 갈등의 대안으로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주장해 왔으나, 아직 정부 정책은 과거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애초 분산형 에너지 확대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차별 문제로 접근했다면, 이제 분산형 에너지 확대 문제는 전력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



밀양 765kV 송전탑

호남권 태양광 접속 문제

송전망을 둘러싼 갈등은 호남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전은 올해 9월부터 호남권 변전소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하여 신규 접속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에 신규로 건설 중인 대형 발전소가 없기에 이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전이 지정한 계통관리 변전소는 앞서 언급한 동해안권도 포함되어 있지만,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된 205개 변전소 중 164개가 호남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호남권의 피해가 크다. 한전은 그동안 적자가 심해 적기에 송전망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건설 중인 송전선로가 완공되는 2032년에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탈석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지만, 송전망 문제

로 8년이나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호남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송전망 투자를 등한시했고, 호남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된 것이 주요 요인이지만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연관되어 있다.

전남 영광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 한빛 1,2호기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설계 수명이 끝난다. 이들 발전소의 용량은 각각 950MW로 2023년 한 해 동안 전남에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842MW보다 크다. 폐쇄되어야 할 노후 핵발전소가 제때 폐쇄되지 않자 안 그래도 부족한 송전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한전 적자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몇 년째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분기별로는 한전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만들어진 한전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203조 원에 이른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부채로 인해 들어간 이자 비용만 4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이 제때 송전망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체들이 받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핵발전 신봉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핵발전소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전력을 핵발전소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각 발전소에는 장단점이 있고, 고유한 특성이 있다. 핵발전소는 큰 용량을 갖고 있어 대규모 발전설비로는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출력조절이 힘들어서 그동안 '기저 발전'을 담당해 왔다. 전력 소비는 낮과 밤, 업무시간과 비업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데, 이들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전력 수요를 기저 수요 Base Load라고 부르고, 이 수요를 담당하는 발전을 기저 발전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발전과

석탄발전이 기저발전을 담당하고 가스발전과 양수발전 등이 나머지 부분을 담당한다. 가스발전과 양수발전은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지만, 급격히 변하는 전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인간의 지시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발전소가 아니다. 햇빛이 없는 밤이나 바람이 없을 때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발전량이 바뀌고 이에 따라 전력 수요나 전력망 운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햇빛이 풍부한 낮에는 전기요금을 싸게 공급하고 밤에는 전기요금을 비싸게 하여 전력 소비를 낮추는 유도시스템이나, 낮의 풍부한 전력을 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저장장치 ESS 같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소 불편해 보이지만, 현재 기술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50%가 넘어간 국가들은 모두 시스템 전환을 통해 대규모 정전 같은 큰 문제 없이 전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 과거처럼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송전망 문제는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존 대용량 발전소를 지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간다면 오히려 문제는 악화될 뿐이다. 결국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전력시스템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 패러다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핵발전 신봉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 '대용량 대량 송전'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 핵발전소 단지 건설이었고, 밀양 송전탑 투쟁이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다. 과거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이제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의료공백사태 이후 27.4%가 불편 경험

필수 의료 부족,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우선 해결되어야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을 비롯한 의료공백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채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소비자는 의료비용을 납부하는 주체이고 현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료소비자의 목소리와 의견은 주목받지 못하고 정부와 의사집단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협상과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YWCA연합회는 소비자시민의모임과 함께 의료공백상황에서 의료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해 조사하여 의료 소비자 중심의 의료 개혁을 요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기간 : 2024년 6월 4일(화)부터 20일(목)까지

✦ 조사대상 : 전국 20대이상 성인 1,000명
(여성 500명, 남성 500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오차 : 95±3.10%)

• 연령별 특성

20대(10.7%), 30대(10.6%), 40대(17.5%),
50대(34.0%), 60대 이상 (27.2%)

• 지역별 특성

서울(16.9%), 수도권·강원(33.3%), 경상권(21.5%),
전라·제주(17.4%), 충청권(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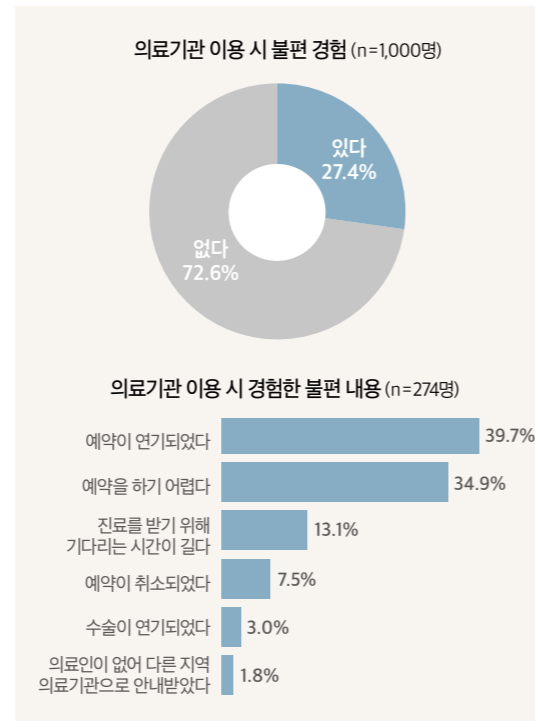
88.4%가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까 불안

의료공백사태 이후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27.4%

병원 예약이 연기되었다는 불편 경험이 가장 많아

이번 조사 결과 올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 이후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는 응답이 27.4%로 10명 중 약 3명은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을 겪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병원 예약이 연기되었다가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병원 진료 예약을 하기 어렵다가 34.9%,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13.1%, 진료(검사) 예약이 취소되었다 7.5%, 암 수술 등 수술 일정이 취소되었다 3.0%, 담당 의사가 없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 가라고 했다 1.8% 순서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사태 이후 의료소비자 63.2%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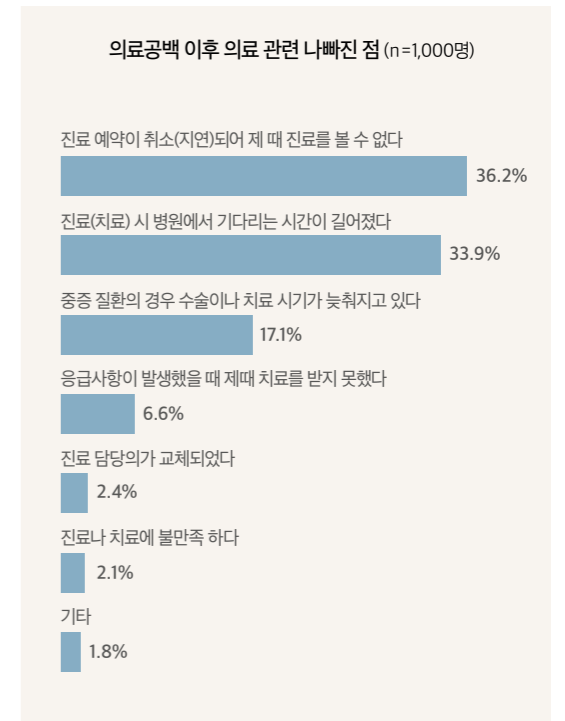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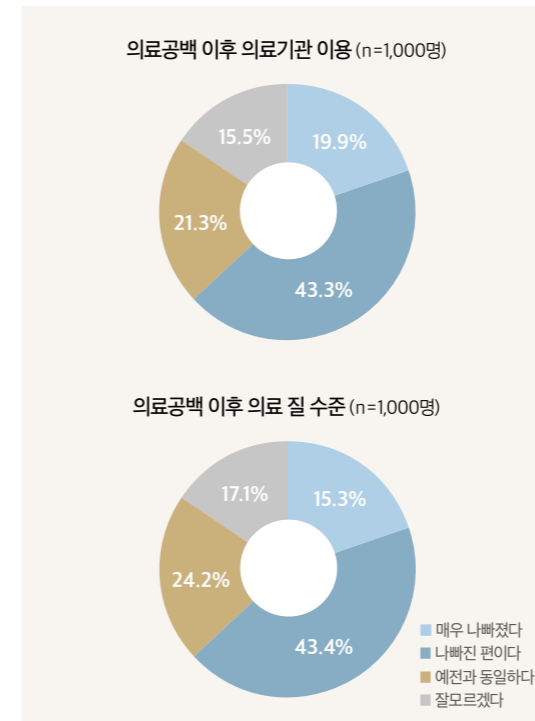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 받기 나빠졌다 응답하였고, 의료서비스 질 나빠졌다는 응답은 58.7%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 공백이 발생한 이후 본인 경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에서 병의원을 찾고 진료 받는 과정과 의료서비스 질

적 수준이 예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병의원을 찾고 진료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예전과 비교해 매우 나빠졌다 19.9%, 나빠진 편이다 43.3%, 예전과 동일하다 21.3%, 잘 모르겠다 15.5%로 나타났다. 응답자 1,000명 중 63.2%가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를 받는 데 나빠졌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한 의료 공백 사태 이후에 의료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 매우 나빠졌다 15.3%, 나빠진 편이다 43.4%, 예전과 동일하다 24.2%, 잘 모르겠다 17.1%로 나타나 약 60%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이용 과정에서 진료 예약이 취소(지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의료공백사태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632명 중 어떤 면에서 나빠졌다고 생각하는지



교제폭력, 자세히 알아야 예방할 수 있는 범죄

교제폭력 무엇이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

교제폭력이란 사귀는 사이, 처음 만나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한다. 교제폭력은 교제 중에 발생하지만,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폭력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제폭력의 발생은 서로 만나는 중, 그리고 결별 이후에 발생하는 폭력이라 볼 수 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귀결되는 일도 적지 않다. 올해만 하더라도 강남역 교제살인, 거제 동갑내기 전연인 폭행 살인,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까지 중상을 입힌 사건, 교제 3주 만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등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교제폭력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 걸까? 사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모든 교제폭력이 수사기관에 신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2023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제폭력 발생 신고 건수는 7만 건을 상회한다. 이는 지난 2017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제폭력 신고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실제 교제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것일 수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으로 경미하게 취급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찰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는 피해자의 기대감이 상승한 결과일 수도 있다.

경찰청 자료 중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현장종결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종결'이란 신고 전화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

해자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아 신고된 사건이 그야말로 현장에서 종결된 것을 말한다. 2023년에 현장종결 비율은 무려 54.4%에 이르고 있다. 신고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없었던 일'로 처리되었다.

【표 1】 교제폭력 발생 현황

구분	신고 건수	현장 종결(건)	검거 인원(명)
2017	36,267	20,417(56.3)	10,236
2018	46,689	26,635(57.0)	10,203
2019	50,581	27,857(55.1)	9,823
2020	49,225	26,868(54.6)	8,951
2021	57,305	30,906(53.9)	10,538
2022	70,790	37,910(53.6)	12,828
2023	77,150	41,955(54.4)	13,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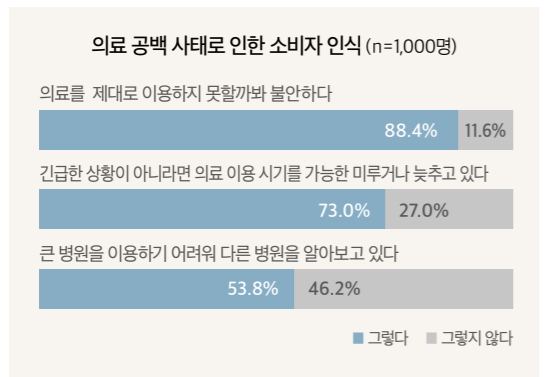
이처럼 현장종결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처벌불원조항' 때문이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피해자와 대면한 이후 가해자 처벌 의사가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이 자신의 의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당황하게 된다. 자신이 처벌 의사를 고수하면, 결국 보복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강력한 처벌 의사를 내비치기 어렵다. 다른 국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피해자를 취약하게 하는 독소조항인 셈이다.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인 간의 사소하고도 잦은 다툼이라는 오래되고 낡은 편견과 달리 교제폭력의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물어본 결과, 진료 예약이 취소(연기)되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가 36.2%로 가장 많았고, 진료(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33.9%, 압 등 수술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17.1%,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6.6%, 담당의가 교체되었다 2.4%, 진료나 치료에 불만족한다 2.1% 순서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타 응답 중에는 건강검진에서 암이라고 큰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급의료기관에서 검사 예약이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의료공백사태로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소비자가 88.4%, 의료 이용 시기를 가능한 미루고 있다는 응답도 73%나 돼

정부와 의료인 간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일부 의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파업 등 의료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88.4%가 의료를 제



로 이용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긴급한 상황이나 아니라면 의료 이용 시기를 가능한 미루거나 늦추고 있다 73.0%로 나타났다. 큰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응답도 53.8%로 나타났다.

가족·친지 중 환자가 있어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35.8%, 그 중 여성이 약 60%에 달해,

환자 돌봄 시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인이 없어 의료공백사태로 불안 가중

가족이나 친지 중 아파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1,000명 중 35.8%로 나타났고, 이 중 58.2%가 여성이었다. 돌봄 대상으로는 부모가 63.1%로 가장 많았고, 아내나 남편이 19%, 자녀가 10.9% 등으로 나타났다. 환자 보호자로서 돌봄 기간은 1년~3년이 26.3%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도 17.6%로 나타났다.

이들 중 65.2%는 의료 이용 및 의료기관 선정, 치료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인이 없다고 응답해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병원 예약이 변경되거나 연기되어 치료에 차질이 생길 경우 도움을 청할 전문가가 없어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의료정상화뿐만 아니라 환자 돌봄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의료 개혁 과제로는 ①필수의료 부족 해소 ②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③의료인력 부족 문제해결 순

현재 당면한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필수의료 부족 해소가 2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간 의료자원(의료인, 의료시설)의 불균형 해소가 18.6%, 의료인력 부족(의대정원 확대) 18.2%, 비수도권 지역 의료질 격차 해소 10.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의 의료사태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극단으로 치닫는 의료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정상화를 정부와 의료계에 요구하는 한편, 필수의료 부족,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 등 의료소비자가 원하는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 고자 한다.

성폭력 등을 망라한다. 또한, 혈기왕성한, 감정 처리에 미숙한 젊은 세대들이 주로 겪고 있는 일이라는 오해와 달리 중·장년의 가해자도 적지 않다. 2023년 총 13,939명의 가해자 중 40대 이상은 4,974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교제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7	11,380	315	3,873	2,868	2,276	1,625	423
2018	13,609	431	4,805	3,569	2,532	1,750	522
2019	13,348	372	4,781	3,395	2,445	1,811	544
2020	11,891	280	4,277	2,990	2,289	1,456	599
2021	10,975	331	3,985	2,864	2,056	1,300	439
2022	12,828	428	4,698	3,264	2,353	1,585	500
2023	13,939	534	4,856	3,575	2,570	1,754	650

교제폭력, 위험한 사람의 어떤 특징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의견을 탐색하고, 조정하고, 합의를 이뤄나가는 만남의 초기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의 발생은 당연한 일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면서 사사로운 갈등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해나간다면 더 돈독하고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여러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고 상대를 더 잘 이해하며 친밀성을 쌓아나가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무런 갈등도 없다면 아주 잘 맞는 상대를 만날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느 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눈치를 보며 감정을 맞춰주는 관계일 수도 있다. 만일 작은 실수가 상대의 분노를 유발해서 결국에는 큰 사달이 나는 관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면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 서로 사귀는 과정에서의 폭력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기보다는 신체적 폭력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수반한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상대의 위험한 행위는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통제 행위’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통제 행위’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제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전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 일찍 귀가하도록 종용하는 것, 모임에 나가지 말 것을 설득하려는 것,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권유하는 것 등은 상대를 향한 걱정과 염려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내가 걱정되서 그러는 거야’, ‘너를 보호하고 싶어’, ‘다른 사람이 너에게 관심 갖는 게 싫어서 그래’ 라는 상대의 말들은 어느 순간에는 자신을 정말 걱정하고 위해서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아무리 온건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나의 일상을 감시하려 들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려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결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애인이라면 그 관계는 폭력적으로 변질되기 쉽다. 내가 선택하는 것을 비난하고, 폄하하며,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항상 옳다는 태도를 지닌 자는 곁에 두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통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의 87.7%가 통제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¹ 조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간섭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꼭 알려고 했다’, ‘친구,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별거 아닌 일’로 치부되기 쉽지만, 통제 피해는 신체적 피해에 버금가는, 또는 그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

려워졌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생겼다’, ‘위축되거나 고립감을 느꼈다’,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

교제폭력이 결국 교제살인이라는 가장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법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듯이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특정 법률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 형법에 의거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형법상 폭행,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사건의 접수 및 수사, 가해자 처벌이 모두 피해자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기만 하면 된다. 피해자의 신고철회, 고소취하가 있다면, ‘없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경찰이나 가해자나 모두 피해자의 입만 바라보며 피해자의 결정을 독촉하는 것은 피해자를 한 없이 취약하게 한다. ‘가해자를 진정으로 용서하였거나, 고소를 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아서가 아닌’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는 진정한 처벌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가족부가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복이 두려워서’가 압도적 1순위를 차지한 것은 피해자 처벌 의사를 밝힐 경우 피해자가 무엇을 겪게 될지를 이미 피해자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제폭력,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는 주로 ‘가정폭력’을 규율하는 법률의 대상에 ‘교제중인 자, 교제관계였던 자’가 포함되어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로 보호받고 있다. 교제폭력만을 규율하는 독자적 법률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는 없다. ‘가정폭력’이란

단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폭력이 아닌, 가족과 같이 ‘친밀한 사람들’의 문제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가정폭력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제폭력으로 신고되면 즉각 분리됨은 물론,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최근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것은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통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영국은 중범죄법 *Serious Crime Act* 제76조 개정을 통해 세계에서 최초로 신체적 피해가 없는 통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범죄가 인정될 경우 최장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도 유사한 입법을 시행하였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에서는 2022년 ‘강압적 통제법’이 통과되어 올해인 2024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압적 통제행위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최장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전망

제22대 국회에서는 잇따른 교제살인 발생에 대응하고자 모두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제정법률안 1건과 기존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2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통제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통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통제 행위가 범죄로 인식된다면, 경찰 신고단계에서부터 피해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피해자로서 인지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제살인의 뚜렷한 위험 요인인 통제 행위에 개입함으로써 중대 사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증가하고 흉포화되어 가는 교제폭력, 교제살인에 대해 국민은 국회의 역할을 묻고 있다. 이제 국회가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답변할 차례다. 

+++
1 여성가족부, 『2022년 가정폭력 피해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2022, p.19.

무기를 내리고 대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국YWCA연합회는 정전협정 체결 71년을 맞아 7월 27일(토) 오후 2시, 파주 임진각 평화의종 앞 광장에서 정전 71년 7.27 한반도 평화행동의 날 평화대회 <무기를 내리고 평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합회를 비롯해 고양, 광주, 대전, 부천, 안산, 인천, 의정부, 춘천, 파주 등 9개의 지역YWCA에서 90여 명이 참가했다. 또한, 평화대회 참여를 위해 서울, 춘천,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평화버스가 운행됐다.

본 행사는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 최수산나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평화의 종 타종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다. 타종 행사 이후에는 여는 공연으로 극단 청명의 타악 공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힘찬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되찾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후, 한반도평화행동 공동대표를 맡은 한국YWCA연합



한반도 평화행동의 날 평화대회 사전 행사 후 통일대교까지 행진하는 모습


회 조은영 회장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하성용 총무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조은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과 북은 오랜 분단의 시간 동안 술한 갈등을 겪었지만, 분단의 비극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의 노력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우리는 거대한 폭력과 군사주의와 결별하고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며 이 길에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 지

사, 김정일 파주시장의 연대와 평화 활동가들이 발언했고 파주와 연천, 동두천 등의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생한 평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이재은 소프라노의 평화 공연과 참가자들의 평화 약속을 진행했다. 이재은 소프라노는 ‘꽃밭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며 평화에 대한 바람을 아름다운 목소리에 담았다. 이후에는 전체 참여자들이 평화의종 앞 광장에서 출발하여 통일대교 앞까지 약 3km를 행진하며 평화대회를



마무리했다. 통일대교를 넘어 보이는 북한의 모습 앞에서, 참여자들은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 “접경지역 군사행동 중단하라!”, “대북전단 살포 제한하라!”고 외쳤다. 무더운 폭염의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참가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행사를 마쳤다.

한편, 한반도평화행동은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반도

에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모은 187 컷의 인증샷을 하나로 모아 언론에 알리고 온·오프라인 광고로 제작할 예정이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반도중전평화 캠페인>과 <정전 70년 한반도평화행동>의 이름으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모임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올해 네트워크를 이어가며 다양한 평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화선언문

전쟁 위기의 한반도, 평화가 답입니다

한반도는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이라는 참상을 겪었고 남과 북은 71년을 정전체제로 갈라진 채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긴 휴전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서로 얼굴을 맞대며 대화의 시간을 기울이는 것보다 서로를 적대하고, 반목하고, 비난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2024년 7월 27일 정전협정 71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합니다. 강대국 대치의 악순환이 모두의 평화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행위와 심리전이 남북관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상정하며, 한쪽은 전쟁 연습으로 다른 한쪽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1년의 역사를 통해 대결과 군사적 해법은 오로지 평화를 앗아가고 고통과 희생을 초래할 뿐임을 배웠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힘을 통한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서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은 없습니다. 잃은 것은 무력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작은 오해와 실수로 언제 어떻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확산될 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적 해법만이 이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과 북은 모든 적대적인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연일 접경지역에서는 군사 연습과 심리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과 휴전선 전역에서 일제히 울려 퍼지는 대북 심리전의 소음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터 그리고 삶의 터전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받지 말아야 합니다. 남쪽의 전단 살포와 북쪽의 오물 풍선에 대한 조치로 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는 한반도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리는 역사의 후퇴이고 퇴행입니다. 한반도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전쟁의 불씨만을 키우는 적대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가 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평화를 선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편 가르기로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고, 불신과 적대가 힘을 얻고, 군사적 대결과 전쟁준비가 해결책으로 강요되는 지금, 한반도 평화행동은 이 광기를 멈춰 세우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모든 적대를 멈추고, 휴전 중인 전쟁을 종식하고, 핵무기가 사라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시다.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갈등과 정쟁의 도구로 둔갑한 풍선을 아이들에게 순수한 장난감으로 돌려주듯,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기년간 지속되어 온 적대와 미움을 평화와 화해로 되돌려 주시다. 평화만이 답이고 평화 가 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전쟁 위기 부르는 군사행동, 적대행위 중단하라
적대를 멈추고 남북 대화채널 복원하라
제재와 압박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의 길을 열자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평화, 화해, 협력의 시대로 손 맞잡고 함께 가자

2024년 7월 27일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자 일동

청소년 Y-틴, 함께-! 위로와 용기-!



8월 5일(월)부터 6일(화)까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Y-틴 전국회원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16개 지역에서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생태계’를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 활동 주제인 ‘기후위기와 생태계’와 ‘함께-! 위로와 용기-!’라는 슬로건 하에 인간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끼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며 생태계 전반에 위로와 용기가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Y-틴의 능동적인 참여로 기획된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강경화 전국협의회 총무의 전체 사회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행사는 오예은 서부지역 총무의 여는 예배로 시작됐으며,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이 개회사로 함께했다. 이후, Y-틴 알아가기 첫 번째 순서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은 ‘토론의 정석’, ‘미션 빙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밀함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Y-틴 알아가기 순서에서 이은우 Y-틴 전국협의회 회장이 진행하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운동한다는 것’의 강연을 듣고 ‘다짐 책갈피’를 만들며 기후운동 속 자신들의 주체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Y-틴 활동을 “새로운 만남과 환경을 위해 활동하며 성장해가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라고 정의했으며 “세상의 변화를 알아보고 나의 의견을 말하며 변화를 실천하겠다”라며 주체적인 청소년 운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한음 대전Y 회장의 ‘기후위기와 생태계’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인간을 넘어 비인간동물, 생태계에 끼쳐진 기후위기의 피해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순서에서는 지역Y별로 상반기 동안 진행했던 기후운동 사례를 공유했다. 청소년들은 ‘우리



1 2 상반기 활동사례 공유 모습 3 4 레크리에이션 활동 모습

는 통하는 통영 Y-틴, ‘개구진 충주 Y-틴’, ‘우리는 대전! 중심인 Y’등 재치 있는 제목과 함께 다양한 활동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자랑하고 다른 지역의 활동을 경청하며,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기후대회 순서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활동 아이디어를 나눴다. 청소년들은 소원 팔찌 만들기, 비건 페인팅,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키링 만들기, 비닐을 재활용한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또한, 부스 콘테스트를 열어 각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 이후 조별 논의를 통해 서부지역 1조의 ‘의미가 담긴 팔찌 만들기’ 아이디어를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이어지는 둘째 날, 전국협의회에서 기후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협의회에 앞서 청소년들

은 지역협의회를 통해 하반기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청소년 운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했다. 이후, 전국협의회에서 회칙을 개정하고 기후대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하반기 활동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 청소년들은 논의를 통해 하반기 기후행동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션빙고를 만들어 배포하고, 각 지역에서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은빈 동부지역 총무의 닫는 예배로 마무리됐다. 청소년들은 운동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기도하며 2024 Y-틴 전국회원대회를 마쳤다. 한편, Y-틴은 9월 7일(토) 진행될 907기후정의행진에서 부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2024 기후정의행진을 비롯한 하반기 활동에서 Y-틴 청소년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지구업고 튀어~! '대학·청년YWCA 기후정의아카데미'



2024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운동 주제를 바탕으로 열린 '2024 대학·청년YWCA 기후정의아카데미'가 지난 7월 26일(금)부터 7월 27일(토)까지 1박 2일간 한국YWCA연합회와 서울 일대에서 진행됐다. 대전, 부천, 안양과천군포의왕, 전주의 청년회원과 회원YWCA 청년운동 실무활동가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첫째 날, 참가자들은 청년세대가 느끼는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과 '기후우울'에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기후우울증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기후우울증 점수를 체크해보고, 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실천 방안에 대해 서로 나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나 혼자만 노력하고 있다는 좌절감이 드나요?"라는 질문에 한 참가자는 "오히려 내가 노력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우울증 점수를 시작으로 내 삶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직접 실천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고 이야기했다. 이어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직접 준비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임원들이 상반기 동안 읽고 공부한 '기후정의-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의 저자인 한재카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의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한재카 집행위원은 대중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후위기 말하기 방식과 기후위기가 야기한 다양한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집합적 행동인 '데모'를 통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보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가 아닌 '체

이한음 중부지역 회장

Q 전국화원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준비하는 입장이 되니 정말 모든 게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맡은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힘든 것 없이 정말 재밌게 즐기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발표를 듣는 회원들이 지루해하거나 재미없어 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은혜 간사님과 우리 중앙임원분들이 옆에서 정말 많이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끝까지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Q 전국화원대회를 진행하며 기억에 남는 혹은 보람을 느낀 순간은?

저는 전국화원대회에서 '기후위기와 생태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Y-틴이 '기후위기와 인권'에서 '기후위기와 생태계'로 주제를 확장한 이유와,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 받는 동식물과 환경에 대한 소개가 주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Y-틴 회원분들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진행된 기후대회에서 제 강연 내용과 연관 지어 부스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발표가 Y-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Q Y-틴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Y-틴 이전의 저는 말로만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Y-틴 이후의 저는 환경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먼저 행동하려고 합니다. 또, 성평등, 지역평등 등 여러 분야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Y-틴이 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놀랄 정도로 미래세대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문에 앞으로도 Y-틴 활동을 저를 위해서라도,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Q 본인에게 Y-틴이란?

저에게 Y-틴은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토피아와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Y-틴 이전의 저와 이후의 저는 크게 달라져 있는데요.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상상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을 행할 능력과 힘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Y-틴이라는 단체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청소년 운동의 주체로서, 또래 혹은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종종 청소년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청소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요. 또한 저희를 보며 '유난이다, 공부나 하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께도 제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환경을 지키는 것인데 같이 힘써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지구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선 서부지역 회장

Q 전국화원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개인 일정으로 준비회의에 모두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리허설을 여러 번 하며 내용을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놓치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혐오표현 사용을 지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세대는 숨 쉬듯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고 그 출처 모를 정보를 필터 없이 흡수합니다. 뜻을 알고 나면 사용하지 못할 표현들도 단순히 재밌다는 이유로 소비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기존이나 상황이 애매할 때가 많고 일상에 스며든 표현들이기에 제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Q 전국화원대회를 진행하며 기억에 남는 혹은 보람을 느낀 순간은?

결과를 발표하는 걸 듣다 보면 환경에, 생명에, 특히 Y-틴에 진심이 느껴지는 발표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연대의 목적에 걸맞게 서로를 보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서로의 발표를 들으며 웃음 지을 때 우리가 잘 준비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어요. 먼 거리를 달려 참석해 주신 분들이 참석할 걸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크거든요. 이 자리에서 많이 웃고 좋은 추억 가지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역협의회에서 즐거웠다, 다음에 또 만나요, 등의 소감이 너무 좋습니다.♡

Q Y-틴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쉽게 흥분해버려서 실수가 잦았는데, Y-틴을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차례로 얘기하며 이전 어떤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때도 제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Y-틴 리더, 다들 많이 물어보셨죠. Y-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자주 느껴요. 또,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Q 본인에게 Y-틴이란?

위기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눠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Y-틴은 언제나 저에게 큰 용기입니다. 혼자라면 못 했을 일을 함께 해나가면서 나도 할 수 있음을 느껴 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Y-틴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시선을 돌리게 해준 친구예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취감이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 저 스스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Q 청소년 운동의 주체로서, 또래 혹은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이야기에 경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우 회장의 강연대로 우리에겐 기후위기가 미래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집중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어른들이 해결해 줄 거라 믿기보다 본인 차례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시작'이라는 말 아주 흔하죠. 그만큼 첫 번째입니다. 지금 본인이 인지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옆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 행동할 때입니다. ♡



① 주제를 토론했던 참가자들 ②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의 주제강연 시간
③ '지구를 지키려는 청년들의 작고 소중한 체험이야기' 필드트립에 참여하고 있다.

제 전환'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지금의 체제가 불평등을 끊임없이 양산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체제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강연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와 여성', '빈곤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나누었다. '기후위기와 여성'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성차별이 여성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음을 논의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여성의 물, 식량, 연료 확보를 위한 가사노동 부담이 증가하고 기아와 영양 섭취 감소, 대피소에서 여성에 대한 서비스 부족, 취하를 감소와 조혼 증가 등의 피해에 대해 나왔다. '빈곤과 기후위기' 토론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의 피해자인 쪽방촌, 반지하 거주 청년, 가난한 사람일수록 삶을 갈아 넣는 일을 하는 생명채굴을 이야기하며 생태학적 난민과 식량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둘째 날은 '지구를 지키려는 청년들의 작고 소중한 체험 이야기' 라는 주제로 탐별 필드트립에 나섰다. 연희동팀은 제로웨이스트샵 겸 카페 '보틀라운지'와 비건 식당 '베지스'를 방문했는데 빨대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쓰레기 없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역팀은 제로펄프와 마인펄스, 알맹상점과 비건 옵션이 있는 다움국수에 방문했다. 서울역팀은 필드트립 소감으로 비건 음식도 맛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 지역에도

참가자 후기

Q1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에코 필드트립' 자주 다녔던 곳이지만 잘 몰랐던 친환경 매장과 식당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필드트립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피부에 와닿는 기후정의 체험!

강연, 북클럽에서 읽었던 책의 저자 한재각님과 직접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았다.

기후위기시대 청년의 삶 의미와 기후정의 이야기 토론이 환경을 더욱 생각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필드트립, 실천한다는 뿌듯함과 재미, 직접 비건과 환경적인 가게를 찾아다니는 것이 좋았다.

주제 강연과 필드트립, 주제 강연 같은 경우 작가님의 개인적인 의향이 들어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기후정의에 대한 정책, 현재 상황들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 의미가 있었다. 필드트립의 경우 비건식당, 제로웨이스트 샵 등을 통해 우리가 친환경적인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의미있었다.

필드트립, 비건식당 음식이 생각보다 입에 잘 맞았고 종류가 다양해서 좋았다.

기후우울증을 진단한 결과 내가 중증도 우울인 줄은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놀랐다.

Q2 가장 가슴에 남는 단어 또는 문장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기후정의'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단어였다.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천은 '데모'다. 그저 텀블러를 쓰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같이의 가치', 앞으로도 마음 속에 새겨 힘이 될 것 같았다.

환경과 빈곤, 불평등, 빈부격차는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생각보다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기후우울증'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알아볼수록 현재 기후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쩌면 나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새롭게 다가왔다.

'없으면 쓰지 않는다.' 항상 에이드 같은 음료는 빨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빨대 없이도 잘 먹었기 때문에 진짜 '없으면 그냥 쓴다'는 생각 인상 깊었다.

청년들이 기후위를 조금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는 한재각 강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제로웨이스트샵과 비건식당이 많아져서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불필요한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고체가글, 삼푸바, 텀블러, 유리빨대, 생분해 물티슈, 다회용기, 다회용수저가 담긴 에코키트를 사용했

다. 1박 2일 동안 비건 음식과 비건 간식을 먹고, 내가 만든 내 쓰레기를 모아보는 실천을 통해 무심코 사용한 쓰레기를 돌아보며 과대포장의 문제와 일회용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체감하는 등 낭비없는 삶을 실천했다. ♻️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한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현장탐방 워크숍이 지난 6월 12일(수)부터 13일(목)까지 경주에서 열렸다. 연합회는 올해 탈핵기후생명운동을 담당하는 실무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짝수 달마다 실무활동가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6월은 탈핵기후생명운동의 현장을 방문하고 YWCA 활동가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 배움의 장으로 꾸려졌다. 이번 현장탐방 워크숍에는 고양·광양·광주·대구·대전·동해·목포·부천·순천·울산·의정부·인천·제주·창원·청주 등 총 16개 회원YWCA활동가들과 연합회 활동가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첫날의 일정은 월성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서 진행되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의 강의를 통해 활동가들은 월성핵발전소 및 중저준위 방폐장에 대해 알아보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살펴보

았다. 월성핵발전소는 포항대지진을 일으킨 활성단층으로 인한 위협과 방사능 누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거부해왔으며, 부산고등법원은 2015년 2월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2심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는 국내 핵발전소의 방사능 피폭으로 갑상샘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618명과 그 가족 2,882명이며, 이들은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나아리 바닷가로 이동하여 월성 핵발전소가 마을과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핵발전소의 위험을 실감하기도 했다. 이어 월성 핵발전소 홍보관 바로 앞에 위치한 월성원전 이주대책위원회 농성장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는 제목으로 현장기도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이주대책위원회와 나아리 주민들이 함께 하였다. 연



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대책위 농성이 시작된 지 10년, 갑상샘암 공동 소송이 시작된 지도 9년이 되어간다”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함께 우셨다. 이제 우리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 함께 울자”는 말로 참여자들을 기도회로 초대했다. 활동가들은 기도와 성경나눔으로 마음을 모았다. 연대의 기도를 통해 참가자들은 “핵발전소 지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며 “생명을 억압하는 핵 발전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역의 핵 폐기장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탈핵이 정의’임을 강조했다. 농성장 앞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라는 현수막을 탈핵을 위한 연대의 마음과 함께 YWCA의 이름으로 걸어두었다. 활동가들은 네트워킹 시간동안 지역별로 흩어져 각 회

원YWCA가 자랑할 만한 탈핵기후생명운동에 대해 나누고, 운동을 만들어나가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어 활동가들은 2년 미만, 3-4년, 6년 이상 활동경력으로 나뉘어 연차별 고민을 나누고 더 잘 운동을 만들어 나갈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늦은 밤까지 활동가들의 토론은 뜨겁게 이어졌다. 이튿날의 일정의 시작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방문이었다. 지상건식저장시설과 지하동굴을 둘러보며, 핵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24기에서는 매년 750톤 정도의 고준위핵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도는 90%를 넘어 이제 6년 뒤면 모든 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이지만, 현 정부는 핵발전 진흥정책으로 더 많은 핵폐기물과 위협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나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년을 앞둔 6월 8일,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가 밀양에서 열렸다. 전국적인 비 예보를 들으며 전국 15개 지역에서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에 몸을 실은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차창 밖 시야를 가리고 흘러내리는 비의 ‘눈물’을 보았다. 밀양과 청도 지역에서 있었던 10년 전 폭력 진압으로 하루 아침에 초토화된 마을 주민의 슬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녹아내리는, 전기를 타고 흐르는 ‘눈물’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세워야 하는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도 같은 눈과 발, 그리고 평생 일궈온 삶을 앗아간 정부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이 시행된 2014년 6월 11일 새벽, 10년이 지났지만

주민 공동체에 상처와 반목은 여전히 고진압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실무안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기본전제로, 신규 핵발전소 3기와 SMR(소형모듈원전) 추가 건설을 포함하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하는 핵진흥 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 없이 핵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전력수급 시스템은 이제 그만 바뀌어야 한다는 외침을 전하기 위해 6월 8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1천 5백여 명은 ‘다시 타는 희망버스를 타고 구름떼 같이 모였다. 탈핵·탈송전탑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이들 참가자

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저장시설 확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활동가들은 마지막으로 경주 황리단길에서 조별로 식사를 나누며 워크숍에서 새로 배운 사실들을 공유하였다. 또한 황리단길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숍 ‘밭매기’와 인근의 ‘숲을:제로웨이스트’, ‘오늘은 책방’을 방문해서 경주의 어떤 공간에서 시민들과 탈핵기후생명을 주제로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경주 탈핵신문 읽기 모임이 진행되기도 하는 오늘은 책방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마음으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지 이

야기를 듣기도 하고, ‘숲을:제로웨이스트’ 권은선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 자원순환 운동, 탈핵과 기후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YWCA활동가들은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얻은 점들을 나누고, 또 각 지역으로 돌아가 만들어갈 탈핵기후생명운동을 꿈꾸며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현장탐방 워크숍은 6월로 마무리되지만,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온라인 워크숍은 8월, 10월, 12월 각각 둘째 주 금요일에 온라인 줌 ZOOM에서 열린다. 온라인 워크숍에는 탈핵기후생명운동의 주요 의제와 연결된 강의와 회원YWCA의 사례공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월성원전 피해는 엄연한 국가폭력이다”

+ 심진실 (사)창원YWCA 간사

YWCA 지역RE100 활동가 연구조직 모임으로 도서 ‘원전 마을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투쟁 이야기)’을 읽은 게 작년이었다. 원전의 위험성에 관해 무지했던 나는 ‘원전마을’ 책을 통해 월성원전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고통을 입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내게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는 월성원전은 점점 잊혔다. 그렇게 1년이 지나 탈핵기후위기 워크숍에 참가하게 됐다. 경주에 도착해 진행된 첫 일정은 ‘월성 핵발전소로 보는 탈핵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강의였다. 우리나라 원전 현황,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저장소의 위험성,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와 이주대책 요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말한 원전은 없었다. 핵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몸에는 삼중수소가 나오고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강의를 듣고 월성원전이 보이는 바닷가로 이동했다. 핵 발전소가 바로 뒤에 자리잡고 있는 바닷가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고 있었다. 저 낚시꾼은 원전 앞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바닷가에서 월성원전 현장 설명을 들은 후 이주 요구를 위한 농성장으로 이동해 월성원전 이주

대책위 부위원장 황분희 부위원장을 만났다. 이주대책위의 요구는 하나다. 몸에서 삼중수소가 나오고 가족과 이웃이 암에 걸리는 지역에서 벗어나 살 수 있도록 정부에게 이주대책을 요구할 뿐이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어진 농성에 어느 정권도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황분희 부위원장의 얼굴에는 10년 동안 농성장을 지켜오느라 애달픈 마음이 녹아들어 있었다. 다음날 방폐장을 견학했다. 안내 직원은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핵폐기물을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설명했지만 전날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 보관시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나는 직원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고 피폭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월성 핵발전소 피해는 엄연한 국가폭력이다. 국가는 성장과 발전에 눈이 멀어 지역 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원전과 송전탑을 세우고 급기야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방치했다.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0주년 집회 포스터에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문구가 있다. 우리가 쉽게 쓰는 전기가 과연 누구의 눈물을 타고 흐른 전기인지 돌아봐야 하며 더이상 눈물로 흐르는 전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탈핵기후생명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YWCA의 운동을 더욱 이해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들은 우선 청도·밀양 5개 마을에 각각 나뉘어 주민과 함께 송전탑 현장을 방문하는 사전행사<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에 참여했다.

오후 4시부터는 밀양 둔치공원에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223개가 공동주최했고, 전국 15개 지역에서 20개의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가 출발하여 1,500여 명이 운집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인 6.11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이후 10년이 됐지만, 폭력진압에 책임이 있는 그 누구


도 처벌받지 않은 채 10년이 흘렀고 송전탑은 철거되지 않았다. 당시 밀양 경찰서장이던 김수환은 현재 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이 되었고, 지난 5월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하는 핵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전기본에는 모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대형 핵발전소 3기와 SMR(소형모듈원전) 신규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대로 전기본이 확정된다면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슬로건이 보여줬던 부정의로부터의 전환은 커녕, 기후위기 대응에도 실패할



것임은 오늘 참가자 모두는 분명히 알고 있다.

지난 19년간, 송전탑이 세워진 후에도 여전히 송전탑에 반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본 대회에서 참석하여 "밀양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단호히 말하며, 에너지 생산, 수송, 소비의 전 과정에서 누구의 희생도 없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본집회에서 발언과 결의문을 통해 △폭력진압 책임자 김수환 경찰청 차장의 사죄 △신규핵발전소 건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석탄화력발전소 등 초고압 송전탑을 확대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

기 △밀양 청도 초고압 송전탑 철거 및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철회 △주민과 노동자, 모두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의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특히 "6.11행정대집행 10년을 기억하며 11차 전기본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을 강조했다. 종일 내리는 비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한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이 마련해 준 눈물의 '묵밥'을 기쁨으로 받아 먹으며 밀양 투쟁을 잊지 않고 송전탑 철거와 탈핵을 위한 행동에 보다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물 한 방울도 정치! 정치는 어렵지 않다



① 성평등 캠페인 활동 모습
② 안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회

1948년 한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보장된 이래, 여성 정치는 더디지만 발전해왔다. 최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명의 여성의원 선출돼 역대 최다수 여성의원 활동한다는 점은 정치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에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정치의 남성지배' 구도는 여전히 공고하다. 이에 안산YWCA는 여성의 입장과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남성지배 구도를 견제했다. 안산YWCA 회원들은 시의회 회의록과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해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안산YWCA의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의회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지자 이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고이지 않으며 멈추지 않는 여성, 안산YWCA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치 소모임 '난달'

안산YWCA는 2000년부터 '의정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시의회를 모니터링 해왔다. 시의회는 조례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들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정 지킴이는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명확하게 반영해 정책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하는 일을 도맡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가 부각됐고 의회에서 보고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정 지킴이 활동의 의미가 퇴색되자 안산YWCA는 활동의 범위를 넓혀 '정치 소모임 '난달'을 꾸렸다. 순수 안산 여성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난달은 본래 '길이 여러 갈래로 통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순우리말이다. 소모임 이름처럼 안산 시민들은 난달을 통해 다양한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난달은 시의회 활동 모니터링을 넘어 이제는 시의회 회의록과 성평등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각종 정책에 대한 본회의, 임시회의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발표한다. 그러면 난달 구성원들은 해당 정책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 내용을 파악한 뒤, 방대한 회의록을 분석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후,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들을 시상하고 부족한 의원들에게는 격려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인지 예산과 성별 영향 평가를 분석한다. 단순한

수치 검증은 넘어 편성된 예산이 정책적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 역시 살펴보고 있다.

젠더렌즈 모니터링

넓은 의미에서 정치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젠더렌즈 모니터링은 시내 공간과 시설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성인지적 시각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2023년에는 SNS와 공공시설 두 항목으로 분류해, 미디어와 홍보물 속 개선해야 될 성차별적 요소는 무엇인지,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고민했다. SNS 모니터링을 위해 우선 안산시가 운영 중인 유튜브브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성별, 가족 등에 대한 차별 혹은 혐오표현의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공공 시설물의 경우, 직접 공공시설을 일일이 방문해 표지판 설치 여부, 경사로 존재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이후, 결과를 취합해 우수사례 및 보완할 점을 명시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젠더렌즈 모니터링은 현장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컨설팅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젠더렌즈 모니터링 이후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함이다. 3일 동안 2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현장에서 교육하며 성인지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컨설팅하는 형식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성인지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정책과 활동을 견제하는 시민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후에는 보고회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안산YWCA 활동에 대해 알리는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매년 말,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시의원과 주무관, 내부 활동가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장미진 안산YWCA

사무총장은 “이 과정에서 때로는 주무관들이 기본 상해할 때도 있겠지만 지자체의 협력이 없는 절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보고회의 가치를 강조했다. 실제로 모니터링 보고회는 단순히 안산YWCA의 활동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민주적 개선 방안을 논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모두를 위한 감수성 학교



한편, 정치가 어렵게 혹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민들을 위해 부드러운 정치 학교, 이른바 감수성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감수성 학교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가가는 ‘생활정치 학교’의 새로운 이름이다. 약 한 달 간 8회에 걸쳐 진행되는 감수성 학교는 매주 월, 수 저녁 시간

15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한다.

감수성 학교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의 차별을 부각했던 과거의 방식과 달리 그림과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처럼 감수성 학교는 예술을 도구로 작품 소개와 함께 그 안에 배제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차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난 7월 15일(월) 진행된 수업에서는 원은정 인권교육연구소 원장의 ‘영화로 만나는 젠더감수성’ 강의가 열렸다. 수강생들은 영화 속 내제된 성차별과 2차 가해 등의 모습을 현장에서 영상으로 직접 보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평등은 표면적인 것이며, 미디어가 강화해놓은 모습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후기를 전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이 남성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성평등한 사회 구축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인터뷰를 마치며 장미진 사무총장은 “우리 모두가 성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성평등하지 않은 것이 불편하지가 않다”면서 함께 활동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작은 물 한 방울까지도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사회를 둘러싼 모든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일상 속 정치’에 끊임없이 목소리 높일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 우리도 정치는 국회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며, 우리 주변과 지역을 바꾸는 일부터 동참해보는 것이 어떨까?

인터뷰를 마치며 장미진 사무총장은 “우리 모두가 성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성평등하지 않은 것이 불편하지가 않다”면서 함께 활동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작은 물 한 방울까지도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사회를 둘러싼 모든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일상 속 정치’에 끊임없이 목소리 높일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 우리도 정치는 국회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며, 우리 주변과 지역을 바꾸는 일부터 동참해보는 것이 어떨까?

YWCA 목적과 사명을 새롭게 새기다



2024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

1 2 3 4 5 6 강릉YWCA 수원YWCA 익산YWCA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의 시작

한국YWCA는 조직 재구조화 이후 기독교여성시민운동단체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였다. 2024~2025 한국YWCA 조직운영 비전인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건강하고 투명한 기독교여성시민운동단체’로 나아가기 위해 ‘YWCA 목적과 정체성에 기반한 조직운영 역량 강화’, ‘공익법인 책무성 강화’, ‘지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YWCA 활동가 운동역량 강화, ‘지속가능

한 조직운영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활동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Y아카데미는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기독교여성시민운동단체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의사결정 책임을 맡은 이사들의 YWCA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의식은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지닌 기독교여성시민운동단체로의 조직 운영 비전 실현에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 강의를 경청하는 남원YWCA 이사들.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신설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은 '회원Y 이사 법인운영 역량 강화', '회원Y 이사의 YWCA 목적과 정체성 인식 강화', '회원Y 이사의 YWCA 중점운동 이해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개년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일방적 교육이 아닌 회원Y 맞춤형 교육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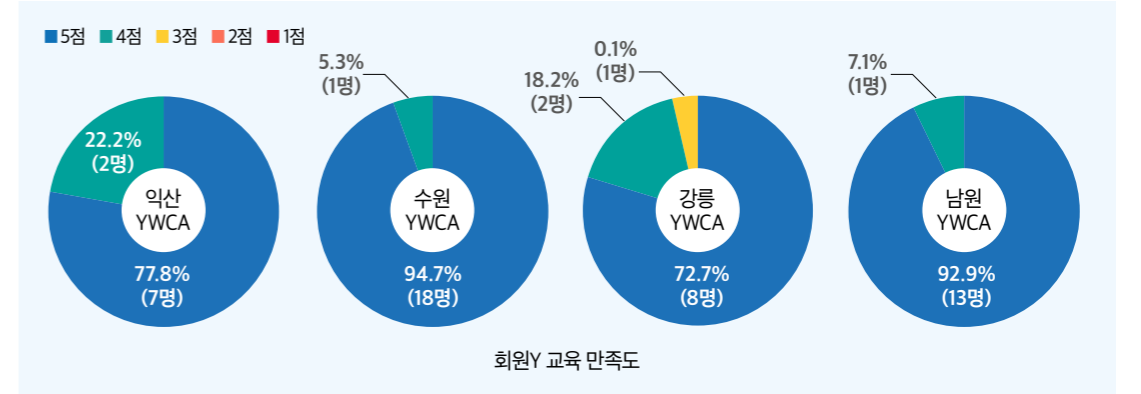
본 교육은 Y아카데미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이 아닌 회원Y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신청 및 교육 과목도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중점운동', '비영

리 거버넌스', '회원Y 정관 및 제규정' 가운데 회원Y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올해 총 6개Y(강릉Y, 남원Y, 수원Y, 여수Y, 익산Y, 평택Y)가 교육을 신청하고 선정되어 지난 6월부터 익산Y를 시작으로 수원Y, 강릉Y, 남원Y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24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

첫 시작은 (사)익산YWCA 이사교육으로 6월 4일(화) 익산Y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익산Y 이사, 중경회장, 실무활동가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영리 거버넌스와 익산YWCA 이사(회)의 역할>(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과 <(사)익산YWCA 정관 및 제규정>(송록희 연합회 지역협력·교육국장)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익산Y를 운영해나가는 방향을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이어 두 번째 교육으로 7월 9일(화) (사)수원YWCA 이사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원Y 이사, 실무활동가, 부속시설 관·부장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영리 거버넌스와 수원YWCA 이사(회)의 역할>(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과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대표)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특히 탈핵기후생명운동 강의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



RE100'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원Y 운동을 모색해보며 에너지전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세 번째 교육은 7월 23일(화) (사)강릉YWCA에서 진행하였다. 강릉Y 이사, 실무활동가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대표) 교육이 있었다. 강릉 인근 원전·화력발전 밀집 현황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강릉Y를 비롯한 강원도 지역 YWCA들이 화력과 원전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유휴부지 태양광 의무화 캠페인이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조례 제정 운동, 주민의견수렴 모니터링 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 교육은 (사)남원YWCA 이사교육으로 7월 25일(목) 남원Y에서 진행하였다. 남원Y 이사, 본부 및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대표)과 <YWCA 성평등운동>(최수산나 연합회 시민운동국장)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혐오와 성평등', '기독교와 여성주의'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YWCA 성평등 운동은 여성이 갖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여성뿐 아니라 소외·배제·혐오당하는 이들과 함께해나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의 가치를 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교육을 통해 YWCA 목적을 상기하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6개Y 교육 가운데 현재까지 익산Y, 수원Y, 강릉Y, 남원Y 교육을 진행하였다. 회원Y 이사, 실무활동가들은 각 회원Y에 필요한 내용 위주의 교육이라 그 어느 때보다도 열중하여 교육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회원Y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 교육이라 집중할 수 있었다', 'Y구조와 운동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Y비전과 목적, 미션들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목적을 다시 상기했다', '함께 살아감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힘이지만 모아 연대하여 조금씩 바뀌기만 좋겠다', 'Y의 현재 운동과 앞으로 해야 할 운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보는 보람도 찾아야겠다', '탈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겠다', '탈핵기후생명운동은 Y에 필요한 운동', 'YWCA 중점운동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사님들의 가슴에 불꽃이 보이는 듯했다' 등과 같은 교육 소감을 전하였다.

조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이 지속가능한 YWCA를 위한 주요 의제가 되었다. 조직운영 기반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필수적인 이사 역량강화의 중요성에서 시작된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은 전국 회원YWCA에 열려있는 교육으로서 2025년에도 찾아갈 준비가 되어있다.

‘연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주변에 연애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가? 최근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청년들의 가치관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딩크족, 비혼주의를 넘어 비연애주의를 선택하는 청년들. 이번 청년토크에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봤다. 청년토크는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참가자들의 이름을 여름, 수박, 바다로 신는다.

나는 SOLO

여름 : 주변에 모태솔로 친구들 많아?

바람 : 내 주변에는 반반인 것 같아.

수박 : 예전에는 모태솔로라고 하면 놀림감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여름 : 맞아. 연애를 못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바람 : 뉴스를 찾아봤는데 20대 10명 중 6명이 솔로고, 3명 중에 1명이 모태솔로래.

수박 : 결혼을 안 하는 추세라는 건 알았지만 연애를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여름 : 혼자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가족제도에 얽매고 싶지 않는 분위기가 이런 양상을 만들어낸 것 같아.

바람 : 실제로 비연애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70%고, 그 이유로는 ‘여유가 없어서’, ‘연애에 관심 없어서’,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어서’ 순이래.

수박 : 연애를 안 하는 건 결혼을 안 하는 것,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이 모든 것과 연결 돼.

수박 : 요즘 연애 관련 프로그램이 진짜 많잖아.

바람 : 연애남매, 환승연애, 체인지 데이즈, 심지어 무당들이 나오는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도 있어.

여름 : 프로그램 내에서 각자가 지지하는 커플들을 만들고, 응원하고 때로는 욕하면서 대리연애를 하는 것 같아.

수박 :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돈이 많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들이 출연해. 그들의 화려함을 보면서 초라한 나는 연애를 안 해야겠다는 게 대다수 청년들의 생각이야.

바람 : 그들과 나의 외모, 직장, 연봉 차이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여름 : 현실에 치이다보니 예능이나 드라마로 연애감정과 본능을 때워버리는 거야.

수박 : 드라마와 영화에서 나오는 말도 안되는 연애, 결혼 스토리보다 연애 프로그램은 현실적인 이야기와 일반인이 나온다는 점에서 20~30대들이 더 공감하는 것 같아.

무나니스트¹

여름 : 무난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사회구조, 생존 경쟁에 내몰린 구조, 코로나 시국이 청년들에게 준 건 포기하고 포기야.

바람 : 무한 경쟁에 지쳐 포기가 익숙한 게 MZ세대지.

수박 : 사실 나는 연애란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어. 근데 연애가 이제는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더라고.

여름 :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연애이자 결혼이라고 생각하니깐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 같아.

바람 : 나는 연애하지 않는 내 삶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현실적인 벽이 크기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속상하지는 않아.

여름 : 나도 젊어서 연애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이 너무 행복해.

여름 : 옛날에는 혼자 할 게 없으니깐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이제는 혼자도 너무 재미있는 시대라 연애를 더 안 하는 것 같아.

수박 : 코로나 시국도 한몫했지. 배달 서비스와 OTT² 발달로 이제는 집에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

바람 : 우리는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시대를 살지.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혼자 즐길거는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연애는 절대 안하지.

여름 : 정 외롭다면 연애보다는 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반려동물을 키울 것 같아.

아. 그런 사람들만 이룰 수 있는 게 결혼이란 출산이라 생각해.

수박 : 공감해. 나는 비연애, 비혼주의야. 없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너무 커.

바람 : 예전에는 결혼 적령기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게 평범했다면,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평범하고 무난한 것 같아.

수박 : 사회 분위기와 SNS가 만드는 부를 과시하는 양상들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눈높이가 높아진 것 같아. 솔직히 꾸역꾸역 연애하고 결혼할 바에 아예 안하고 말지.

여름 : SNS가 보여주는 것을 나 스스로와 비교하면서 출산과 결혼을 포기하는 것 같아. 결혼과 가족, 자녀에게 투자하느니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야.

바람 : 연애를 안 한다고 비혼주의자라고 오해하는 분위기도 불편해. 나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뿐, 결혼을 거부하지는 않거든. 우선순위가 다른 것 뿐이야.

여름 : 비혼주의는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해. 배우자와 그들의 가족, 자녀에게 희생하는 것보다 나 혼자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좋아.

수박 : 잠시나마 셀프 진단을 해봤는데 결혼할 건적이 안나 온다(웃음) 나는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로 자제!

바람 : 우리의 가치관이 어느 시기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자. 🍷

연애 말고 결혼 말고

수박 : 연애나 결혼에서 너희의 추구미³는 뭐야?

여름 : 나는 연애는 하고 싶지만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SNS를 보면 세상에는 돈 많고, 잘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

+++

¹ '무난하다'와 '-ist'의 합성어로 2000년생들 사이에서 최근 화자되고 있는 유행어다. 앞서가지도 동시에 뒤쳐지지도 않는 무난함을 추구하겠다는 그들은 삶의 목표를 바로 그 무난함에 두고 있다.

+++

²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VOD 서비스다. 어원은 'Over The Top'으로 'Top(셋톱박스)을 넘어'라는 뜻이다. 셋톱박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콘솔 게임기, 스마트 TV 등 다수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한다.

³ '추구하다'의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뜻하는 한자 미(美)가 합쳐진 말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뜻한다. 즉, 나만이 갖고 있는 개성과 스타일을 추구하여 이를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비바람 속에 피워낸 꽃, 오사카 조선인 여공들의 삶

되살리고 기억해야 할 그들의 노래

광복절 새벽에 공영방송 KBS가 기미가 요와 기모노가 등장하는 오페라를 방영하고, 일제식민지 시대를 미화하고 항일정신을 잇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인물이 기관 이름이 무색하게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지금, 가뜰이나 열대야로 잠 못자는 많은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일제침략의 역사를 근대화와 번영의 시작으로 둔갑시키고, 그 시기 이루어진 일제의 체계적 수탈, 강제적 동원과 노동 착취, 교활한 인신매매와 성착취 등이 조선 근대화를 위한 우리 민중들의 자발적 참여였다고 왜곡시키는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요즘, 과거의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고 기억하는 일이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아픔의 역사를 왜곡하고 망각시키려는 힘들이 기세를 떨치는 이 시기, 가장 힘 없고 보잘 것 없는 존재들로 여겨진 식민지 조선의 어린 소녀들의 가슴 아프지만 치열한 이야기가 스크린 속에 감동적으로 재현되었다.

이원식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조선인 여공들의 노래>가 바로 그것이다. 1910년대~1940년대, 식민지 수탈로 더욱 가난해진 조선의 민중들은 일본 방적공장에서 일하면

입도 덜고 돈도 벌며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어린 딸들을 오사카 지역 방적공장으로 보낸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경제 대호황기를 맞은 일본은 더 값싸게, 더 쉽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데려온다.

이 영화는 대부분 10대였던 조선의 어린 소녀들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조선 돼지'라는 멸시 속에 가혹한 노동 착취와 굶주림의 일상을 살아야 했던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어린 조선인 여공들을 단지 억압 속에서

이국의 번영을 위해 희생당하는 존재로만 그리지 않았다. 이 영화가 가진 커다란 힘은 바로 어린 여성들이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열어나가기 위해 몸부림친 뜨겁고도 아름다운 역사를 재현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소녀들의 노동으로 이룩한 번영

자본주의가 시작되던 영국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런 생활을 해야 했던 존재들은 바로 어린 소녀들이었다. 불결하고 비참한 노동환경 속에서 닳치는 대로 일해야 했던 그들은 언제나 성추행과 폭력에도 시달려야 했다. 자본주의 발전 역사는 곧 '여공애사(女工哀史)'로 표

현될 만큼 전세계 어디서나 여성의 노동은 무상으로 혹은 저임금으로 손쉽게 이용되었다. 근대 일본이 그랬고 1970-80년대 우리나라도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여공들의 슬프고 아픈 역사가 있었다.

특히 일본이 경제 대호황기를 구가하며 제국열강으로 성장하던 1910년대부터는 더욱더 값싼 여성노동이 필요했다. 모집된 조선인 여공의 장점을 말하고 있는 그 당시 신문기사는 조선의 어린 여공이 일본 자본가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오사카 지역 방적 회사에서는 조선 여자를 많이 쓰고 있다.(...) 내지 여자들과 비교하면 유순하고 근면하며, 무엇보다 남자에게 미치는 일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들은 열네 살 여자아이부터 스물일곱까지 있다.”

-1913년 12월 오사카 아사히신문

영화는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오사카 지역의 방적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정성스레 찾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인이 되었기에, 1980년대에 재일 교포 김찬정 작가가 쓴 같은 이름의 책 속의 증언들이 커다란 기반이 되었다.

그 당시 여공과 같은 또래의 재일교포 소녀들이 증언을 읽고 장면을 재현하면서 그들의 삶, 그들의 노래는 더욱 절절하고 생생하게 살아온다.

“우린 또 하루를 살아가네”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 속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실밥 먼지가 떠다니는 작업장과 비위생적인 숙소 안에서 뒤엉켜져서 겨우 쪽잠을 자던 그들. 그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구조화된 건물 속에 거의 갇히다시피 노동하며 살아야 했다. 굶주림 속에서도 일본인들이 먹지 않고 내다버린 동물들의 내장을 주워먹으며 영양을 보충했던 그들은, 그 때문에 '조선 돼지'라는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주워먹던 동물 내장은 '호루몬 야끼'라는 인기 요리가 되어 일본의 중요한 육식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호루몬' 이야말로 이들의 고난의 상징이자 또 고통의 세월을 관통하여 삶을 살아낸 원동력이기도 하다. 호루몬으로 영양실조를 이겨낸 어린 여공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착취를 묵묵히 감내하지만은 않았다. 일본인 동료의 해고에 맞서 항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대규모로 파업을 하기도 했다. 밤샘노동으로 졸음이 쏟아져도 고향집 부모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자신들의 처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야학을 조직해 한글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100세에 가까운 고령임에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김상남 할머니는 조그만 몸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밥통'이라고 불렸다 한다. 11살 때 일본에 와 오사카 방적공장에서 일한 그는 “일본 사람들이 쪼매 내한테 툅 툅거리 보이소. 내가 가만있는가. 절대로 안 졌지.”

이들의 저항은 잔인하게 짓밟히고 패배하기도 했지만,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내려는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이들은 고된 일상 속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음률은 전해지지 않고 가사만 남았다.

“자, 우리 여공들이여. 오늘 일과를 말해보자/밤중에 한 밤중 깊은 잠 들 때 잠을 깨우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눈뜨고 머리 빚으며 세수하고/ 식당에 가면 먹을 시간 없어 된장에 밥 말아 쑤서 넣듯 먹고/자 우리 여공들이여, 우린 또 하루를 살아가네.”

고통스런 상황에 저항하며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있는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엔 붉은 땀을 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지더라도 우리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단심(丹心)으로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이 조선인 여공들처럼 마음 속에 저마다 붉디 붉은 땀을 품어야 할 것만 같다.

정전 70년 한반도평화행동 제26회 늦봄 통일상 특별상 수상



6월 1일(토) 문익환 통일집에서 열린 늦봄 문익환 30주기 행사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제26회 늦봄 통일상 수상식 특별상을 수상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2020년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라는 목표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발족하고 한반도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3년간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구축을 위한 국내외 종교계와 시민사회 공동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 지속되는 평화 통일 운동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6·7월 월례아침기도회



월례아침기도회가 6월 3일(월)과 7월 1일(월)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와 온라인 줌에서 전국 17개 회원YWCA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6월 월례아침기도회는 이현아 목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가 요한일서 3장 18~20절의 말씀과 '그토록 구체적인 진리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구체적 행함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또한, 7월에는 최규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담임목사)의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규희 목사는 '갈라진 성벽을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분단과 갈등 속에서 사회적 자비와 공화를 실천함으로써 갈라진 성벽을 새롭게 건설하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어야 함을 설교했다. (자세한 내용은 3쪽)

팔레스타인 평화활동가 니달 아부줄루프 초청 강연회

6월 7일(금) 오후2시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팔레스타인 평화활동가 니달 아부줄루프 초청 강연회가 진행됐다. 연합회를 비롯한



여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의 에큐메니칼 공동체 및 시민사회 단체(한국YMCA전국연맹, 남북평화재단,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공동 주최로 "팔레스타인-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시민사회와 에큐메니컬 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회에서 니달 아부줄루프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현재 상황과 팔레스타인 평화운동의 역사 및 국제사회와 세계교회와의 연대활동 등을 공유했다. 이후 신승민 원장(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과 이동화 상임이사(사단법인 아디)가 한국 에큐메니컬 공동체와 및 시민사회단체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공유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향후 한국의 에큐메니컬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팔레스타인과 지속적으로 연대해나갈 운동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밀양행정대집행 10주년 집회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년을 앞둔 6월 8일(토),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가 밀양에서 열렸다. 청도·밀양 5개 마을에 각각 나누어 사전행사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가 먼저 열렸고, 밀양 둔치공원에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연합회와 YWCA경남도협의회, 광주YWCA, 부산YWCA를 비롯하여 전국 223개가 공동주최하였고, 전국 15개 지역에서 20대의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가 출발하여 1,500여 명이 운집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인 6.11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이 있는 지 10년이 되었지만, 폭력진압에 책임이 있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채 10년이 흘렀고 송전탑은 철거되지 않았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모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대형 핵발전소 3기와 SMR(소형모듈원전) 신규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탈핵과 탈송전탑'을 외치며,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막아내고 정의

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낼 것을 결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33쪽)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현장워크숍



6월 12일(수)부터 13일(목)까지 YWCA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현장탐방 워크숍이 경주 월성에서 진행됐다. 워크숍에는 한국YWCA연합회 실무활동가를 비롯해 고양·광양·광주·대구·대전·동해·목포·부천·순천·울산·의정부·인천·제주·창원·청주 등 총 16개 지역 YWCA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가 참여했다. 공공연대노조 강당에서 '월성 핵발전소 보는 탈핵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월성 이주대책위 농성으로 이동해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연대의 기도를 통해 참가자들은 "핵발전소 지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며 "생명을 억압하는 핵발전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13일에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방문해 핵폐기물을 직접 보며 이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고민했다. 또한, 제로웨이스트샵과 책방을 방문해 그들이 경주에서 탈핵기후생명 운동을 실천하는 방법을 듣고 탈핵 문제에 더 가까워지는 북토크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30쪽)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자회견



한국YWCA연합회는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노총가사노동부유니온·한국가사노동자협회·전국가정관리사회회 등의 유관단체와 함께 지난 6월 14일(금) 국회 앞에서 '제1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돌봄노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돌봄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개최됐다. 조은영 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돌봄 수요와 일자리 요구에도 돌봄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의 사회서비스화 등 돌봄의 국가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한편,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6월 16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6월 16일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으며 2012년 제 101차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지정했다.

럭스나인(주),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후원 협약



한국YWCA연합회는 6월 17일(월) 오전 럭스나인(주)에서 김인호 대표이사와 '2024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후원 협약을 맺었다. 럭스나인(주)의 미션 '세상을 이롭게'과 맞닿아 있는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는 올해로 3년째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럭스나인(주) 김인호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관심과 후원으로 청년들의 문화활동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2022년 연합회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된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는 올해 세 팀의 지역여성청년활동가를 지원한다.

KPA 한반도평화행동 출범대회



한국YWCA연합회는 6월 25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식 :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에 참여했다.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합회 최수산나 시민운동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출범대회는 참여자들의 인사말과 각계발언, 출범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지난 3년 동

안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Korea Peace Appeal)을 진행했지만, 한반도 주변 상황은 더 험악해졌다"고 지적하며,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전쟁 위기 부르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 남북 군사합의서, 남북 대화채널을 복원할 것,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관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행동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이름으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모임이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올해 다양한 평화 행동을 통해 고조되는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민원 접수 시민행동: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제한하라> 신청서 접수



한국YWCA가 함께 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행동은, 6월 18일(화)부터 24일(일)까지 일주일 간 <온라인 민원 접수 시민행동: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제한하라>를 진행하고, 참여자 2,677명의 서명을 정부종합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대표 신청인으로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 함께한 약 40여 명의 한반도평화행동 소속 공동대표 및 활동가들은 개인으로도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충민원신청서는 '접경 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단속 및 제한 촉구'라는 제목으로 통일부(장관 김영호)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에 제출됐으며, 경찰청으로부터는 향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7월 2일자 처리 결과를 답변받았다.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21주년 회원대회 참석

연합회는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의 창립 21주년과 회장이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조은영 회장과 김은경·이은영 부회장 등의 회장단과 구정혜 사무총장이 연변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6월 27일(목) 오후 4시부터 연길한성호텔 3층에서 개최된 창립 21주년 기념식과 회장 이 취임식에서 지난 3월 회장으로 추대된 최옥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 여 간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신미화 회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28일(금)에는 백두산 천지와 장백폭



포에 올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연합회는 지난 2003년부터 아시아여성지도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가 연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석탄발전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후정의 기도회



연합회가 함께하는 기후위기기독교교비상행동에서 주관하는 두 번째 기후정의 기도회가 충청남도 태안에서 열렸다. 기후대응을 위해 빠른 탈탄소가 요청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역시 당장 내년부터 1, 2호기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태안에서만 3,000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YWCA충남도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본 기도회의 참석자들은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이어진 석탄발전소 노동자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현 상황과 요구를 청취했다. 기후위기기독교교비상행동의 세 번째 기도회는 9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 <2024년 씨티강사교육>

<2024년 씨티강사교육>이 6월 27일(목) 한국씨티은행 금융-경제교육 봉사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2024년 씨티강사교육>은 금융-경제교육 봉사단이 교육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강의를 체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연합회 안정희 부장의 <YWCA와 씽크머니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씨티은행의 유소희 수석, 이성욱 팀장, 김도훈 부



부장이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초생활경제/금융교육 콘텐츠 소개>가 진행됐다. 교육을 마치며 금융-경제교육봉사단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안과 강의방식을 배울 수 있어 활용적인 교육이었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든다"고 전했다. 청소년 금융-경제교육에 대한 사명을 가진 봉사단들이 직접 청소년의 입장에서 강의를 체험하며 습득한 교육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YWCA 리필리 자원순환 업무협약식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와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이사장 한영수)는 (주)리필리(대표 김재원)와 7월 1일(월) 자원순환 및 플라스틱사용 절감운동과 친환경생활제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리필리는 페이지명동 6층 정몽구 재단에 입주해 있는 청년기업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종이팩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상용화하여 환경문제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리필 라이프를 선도해가고 있는 주목받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는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절감 및 자원순환이 가능한 종이팩 사용이 확산되도록 (주)리필리와 협약을 통해 종이팩 리필 생활물품을 공동런칭하여 제품개발과 유통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리필리 김재원 대표는 조은영 한국YWCA회장에 리필리에서 생산한 친환경 제품 200개를 후원하고, "탈핵기후정의 운동을 실천하는 YWCA의 자원순환 및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중단 1인 시위

연합회는 지난 7월 1일(월) 12시부터 13시까지 광화문 이수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 참여한 이수진, 임정임 활동가



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1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연합회를 포함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회원단체들은 2021년 6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7차 오염수 방류 후에 '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도쿄전력은 2023년 8월 24일 첫 방류를 시작한 이래 앞으로 30~40년 동안 계속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본 측은 지난 6월 28일까지 후쿠시마 방사능 7차 방류를 감행해왔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회원단체는 오염수 방류인 2024년 10월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우리를 위한, 미래를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시민사회와 제22대 국회의와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연합회는 7월 1일(월)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송재봉 국회의원실을 포함한 13개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국회의와의 협력방안 마련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한국 사회 변화 주체로서 시민사회 역할과 도전'을 주제로 한 중앙대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의 기조발제와, 시민사회와 국회의 협력이 만든 사회 변화 사례, 시민사회 주요 의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와의 협력 방안,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협력 과제를 주제로 3명의 주제발표, 토론순서로 진행됐다. 연합회 박동순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YWCA 재구조화과정에서 경험한 제도개선과제와 법령과 지침간 상충되는 시민사회관련 법제를 통합적 관점에서의 재검토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시민사회 활

성화를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간의 정책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학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와 시민사회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4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 익산·수원·강릉·남원Y



2024년 신설되어 올해 6개 회원YWCA에서 진행되는 <2024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이 첫 시작으로 6월 4일(화) (사)익산YWCA에서 진행됐다. 익산Y 이사, 증경회장, 실무활동가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영리 거버넌스와 익산YWCA 이사(회)의 역할>(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과 <(사)익산YWCA 정관 및 제 규정>(송록희 지역협력교육국 국장)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익산Y를 운영해나가는 방향을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는 소감을 나눴다.

두 번째 순서로 7월 9일(화) (사)수원YWCA에서 진행됐다. 수원Y 이사, 실무활동가, 부속시설 관·부장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영리 거버넌스와 수원YWCA 이사(회)의 역할>(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과 <탈핵기후생명운동>(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대표)를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탈핵기후생명운동 강의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 RE100'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원Y 운동을 모색해보며 에너지전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세 번째 교육은 7월 23일(화) (사)강릉YWCA에서 진행하였다. 강릉Y 이사, 실무활동가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대표) 교육이 있었다. 강릉 인근 원전·화력발전 밀집 현황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강릉Y를 비롯한 강원도 지역 YWCA들이 화력과 원전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유류부지 태양광 의무화 캠페인이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조례 제정 운동, 주민의견수렴 모니터링 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 교육은 (사)남원YWCA 이사교육으로 7월 25일(목) 남원Y에서 진행하였다. 남원Y 이사, 본부 및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대표)과 <YWCA 성평등운동>(최수산나 연합회 시민운동국장)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9쪽)

김필레 한국YWCA 창립자 제41주기 추모예배

한국YWCA 창립자중 한 분인 김필레 선생 제 41주기 추모예배가 김



필레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7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정신여자 중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신여중고 재학생 및 동문, 유족, 한국YWCA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추모예배는 김진란 김필레선생기념사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은정화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의 기도, 유족이신 서원석 경신학원 이사장의 말씀, 정신여중합창단과 정신총동문합창단의 특별찬양, <내가 만난 김필레 선생님> 제목으로 정민제 정신여자중학생회장의 발표와 추모영상시청, 축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암울했던 시대 조국의 독립과 여성 교육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김필레 선생님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한편, 예배에 이어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광주YWCA 주관으로 수피아여중 학생들의 김필레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과 김진란 회장 후원으로 학생들을 위한 문고판 김필레 선생 전기 '힘없는 열정' 3,000권 발간도 결정됐다.

11차 전기본 1차 토론회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연대, 탈핵 시민행동 등 4개 연대체로 꾸려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가 7월 15일(월) 오후 한국YWCA연합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민사회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토론회는 전력수요와 핵발전을 주제로 열렸다. 김병권 연구자는 기후위기 측면에서 바라본 인공지능을 주제로, 이현석 정책위원은 최근 전력수요 확대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확대를 중심으로 전력수요에 대한 발제를 열었다. 이어 이영경 사무국장은 11차 전력 계획의 핵발전 진흥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갔고, 이투뉴스의 이상복 기자가 송전망 문제를 두고 발제했다. 토론회는 김현우 소장, 용석록 실장, 최경숙 팀장, 남아진 활동가가 나서 각

각 전력수요와 탈핵, SMR(소형모듈원전), 송전망 등 관련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2차 토론회는 7월 25일(목) 오후 2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이어진다.

2024 YWCA 피스 포럼



2024 YWCA Peace Forum(피스 포럼)이 2024년 6월 5일(수)과 7월 17일(수),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6월 5일(수) 진행된 피스 포럼 1차는 '왜 여성이 평화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김성경 국제평화위원회 위원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YWCA 평화통일운동 사례공유 및 피스빌딩 워크숍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평화와 평화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7월 17일(수)에 진행된 피스 포럼 2차는 이성숙 어린이어깨동교육센터 팀장의 주제강의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시작으로 회원YWCA 평화통일운동 사례공유 및 피스빌딩 워크숍을 진행했다. YWCA의 평화운동을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8쪽)

2024 대학·청년YWCA 기후정의아카데미



2024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운동주제를 바탕으로 열린 '2024 대학·청년YWCA 기후정의아카데미'가 지난 7월 26일(금)에서 7월 27일(토)까지 1박 2일간 한국YWCA연합회에서 진행됐다. 1일차에는 기후변화가 불러온 기후우울증을 진단해보며 내가 느끼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확인했다. 이어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임원들이 상반기동안 읽고 공부한 '기후정의의 저자인 한재각 기

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의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강의 후에는 '기후위기과 여성', '빈곤과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조별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본인이 느낀 기후위기 불평등 경험을 나누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각자의 실천을 넘어 기후정의에 대한 다짐을 나눴다. 2일차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에코매장과 비건식당 등을 방문해보는 '지구업고 튀어~!' 필드트립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참가한 청년들은 1박 2일간 사용한 에코KIT와 비건음식 먹기 등 낭비없는 삶을 위해 노력한 1박 2일 소감을 나눴다. (자세한 내용은 27쪽)

정전 71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날 평화대회



한국YWCA가 연대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행동은 정전협정 체결 71년을 맞아 2024년 7월 27일(토) 오후 2시 임진각 평화의 종 앞 광장에서 정전 71년 7.27 한반도 평화 행동의 날 평화대회 <무기를 내리고 평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를 개최했다. 평화대회는 극단 청명의 타악공연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대표의 개회사 및 평화의 메시지, 이재은 소프라노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평화를 염원하며 모인 400여명의 시민들에게 평화를 향한 길에 동참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 조은영 회장을 비롯하여 9개 YWCA(고양, 광주, 대전, 부천, 안산, 인천, 의정부, 춘천, 파주)와 연합회 활동가 83명이 참여했다. 평화대회 후 참가자들은 통일대교 앞까지 행진을 진행하였으며, 통일대교 위에서 행진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지금 평화를 원한다!"를 외쳤다. (자세한 내용은 20쪽)

2024 Y-틴 전국회원대회



한국YWCA의 청소년 Y-틴들이 8월 5일(월)부터 6일(화)까지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기후위기와 생태계를 주제로 2024 Y-틴 전국회

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활동 주제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슬로건은 '함께! 위로와 용기!'로, 생태계 전반에 끼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생태계 전반에 위로와 용기가 되는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이은우 Y-틴 전국협의회 회장이 진행하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운동한다는 것'의 강연을 듣고 '다짐 책갈피'를 만들며 기후운동 속 자신들의 주체성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한음 대전Y 회장의 '기후위기와 생태계'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인간을 넘어 비인간동물, 생태계에 끼쳐진 기후위기의 피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전국협의회 회의에서는 지역Y별로 상반기 기후운동 사례를 공유하고 9월에 진행될 기후정의행진에서 운영할 부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자세한 내용은 24쪽)

90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는 8월 8일(목)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에 참여했다. 매년 최고 기온이 경신되



고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오는 9월 7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시민들의 대규모 기후행동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소년), 종교, 환경, 홀리스, 성소수자 등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400 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는 8월 8일(목) 90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을 개최했다. 90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참가자들은 선포식을 마친 후 서울 시내 곳곳에 907 기후정의행진 포스터를 부착하는 행동을 진행했다.

YWCA 1922 장학금(농협 301-1922-0000-31)

2024.1.1 ~ 2024.7.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고이나 구정혜 김문화 김미경 김미에 김민주 김병찬 김승아 김은경 김형남 나연정 박동순 박윤애 박희경 배정미 서혜원 송선경 신성균 안수진 안정희 윤수정 이은혜 이주영 이해련 이해정 임원선 임진영 정서연 조은영 조은지 조한울 최선화 최수산나 홍수진	1,120,000
단체	진해YWCA	150,000
합계		1,270,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농협 301-0161-5540-11)

2024.5.1 ~ 2024.7.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종 고세영 광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나척더르즈돌람수렌 남희숙 문미란 문병식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성민 박용욱 박진화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송인호 신인숙 심은옥 양영심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연규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천진 이해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하만성 하은경 하지원 한영수 홍기자	2,760,000
단체	(사)목포YWCA (사)부산YWCA	447,430
합계		3,207,430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모금 현황(농협 301-0193-6894-41)

2024.5.1 ~ 2024.7.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구정혜 김소영 김인호 김중희 김정 상승호 정석민 김미경 조영민 나갈선 김지영 장형미 엄태문 황지영 김민승 송록희 김수진 손지수	2,710,000
단체	럭스나인	1,740,000
합계		4,450,000

경인·강원권역

(사)강릉YWCA

문혜련 간사

2024 강릉YWCA 상반기 이사·위원 워크숍



(사)강릉YWCA 상반기 이사·위원 워크숍이 6월17일(월) 10시 30분 강릉YWCA 비전홀에서 이사·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식품 안전정보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한국YWCA와 (재)식품안전상생재단 후원으로,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과 김명재 CJ제일제당 차장이 강사로 나와 식품의 구입부터 올바른 보관방법과 식품 포장재의 재활용,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통한 친환경 패키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YWCA 회원들이 올바른 식품구입과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탈핵기후 생명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

(사)동해YWCA

임향옥 간사

동해시민과 함께하는 치매인식개선 교육 특강프로그램



(사)동해YWCA는 5월 24일(금) 오후 2시 동해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이사, 위원, 실무자 포함 동해시민과 함께하는 치매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근혜 회장을 비롯한 동해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들의 치매 인식 제고와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국치매교육협회 정미경 강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 초기 증상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

이 치매 치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식습관과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2024 서울YWCA 정책워크숍



(사)서울YWCA는 7월 9일 삼청동 블루스퀘어에서 '2024 서울YWCA 정책워크숍'을 열었다. 이사·실무자 43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방대욱 대표(다음세대재단)의 특강 '세상의 변화, 우리의 준비'로 시작했다. 이어서 운동성, 영성, 지속가능성-조직문화 관련 발제, 조별 토론과 발표까지 알차게 진행됐다. 점점 심화되어 가는 물질만능시대에 '사람'과 '가치'에 더욱 집중하며 '옳은 길'을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서울YWCA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사)속초YWCA

주미란 간사

(사)속초YWCA 중·고등학교 HACCP 교육



(사)속초YWCA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미래 식품 소비 주체로서 성장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HACCP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향상시켜 적극적으로 HACCP 인증 제품을 선택·구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5월 13일은 양양 강현중학교 전교생 대상으로, 5월 28일 고성 동광중학교, 5월 29일 고성 거진중학교에서 HACCP 교육을 진행했다. (사)속초YWCA는 HACCP 교육 외에도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비자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원주YWCA

최은미 간사

19번째 청소년꽃길잡이주기운동 후원(물)품 전달식



(사)원주YWCA는 6월 28일(금)에 <청소년꽃길잡이주기운동> 업무 협약을 맺은 '원주중앙침례교회 남성목장'이 후원한 선봉기 10대를 '성공회원주나눔의집 햇살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원주YWCA의 목적사업으로 시작된 <청소년꽃길잡이주기운동>은 지역 내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돕는 활동이다.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등의 대상자 추천을 통해 후원하고 있는 이 활동은 원주YWCA의 대표적인 청소년 운동이다.

(사)인천YWCA

서에스더 간사

성평등 그림책 작가단 양성과정



(사)인천YWCA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지원을 받아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양육자가 다시 쓰는 성평등 그림책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성평등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젠더 이슈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성평등 콘텐츠 생산자로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의 주체로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작가단 양성과정을 거쳐 완성된 성평등 그림책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성평등그림책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고, 지역 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춘천YWCA

이지연 간사

新 아나바다 바자회



(사)춘천YWCA가 5월 30일(수) 춘천YWCA회관에서 생명을 살리는 (신)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했다. 아나바다 바자회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것으로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운동이다. 바자회 수익금으로 춘천YWCA가 시민단체로서 춘천시민을 위한 환경운동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운영비로 사용된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그렇다고 지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에코페미니스트들의 유쾌한 세상뒤집기' 프로젝트



(사)고양YWCA는 고양시 성평등기금사업의 지원을 받아 4월 18일(목)부터 10월 30일(수)까지 고양시 여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렇다고 지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에코페미니스트들의 유쾌한 세상뒤집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위기상황에서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삶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후운동에 대한 동기를 강화했다.

이 프로젝트 외에 많은 양의 자원과 에너지 소비 결과로 초래된 기후위기를 살아가면서 욕망과 필요를 구분하는 삶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누구나 기술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기술학교'는 자본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자급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기 위해 서로가 가진 생활기술을 교환하며 배우는 활동이다. 의류쓰레기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21% 의류교환파티, 산 옷을 버리지 않고 오래 입기 위한 바느질 수선법 배우기, 기후활동가들의 세상을 바꾸는 15분 등의 활동들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사)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남양주YWCA 28주년 창립 예배 및 YWCA상담센터 개소식



(사)남양주YWCA는 7월 10일(수) 28주년을 맞이하여 창립 예배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행사에 이사, 위원, 실무자와 하남Y, 부천Y에서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으며, 고문번호사 2분을 위촉했다. 또한, 그동안 준비해 왔던 무료상담센터를 개소해 지역주민 누구나 마음의 문을 열고 고민을 들어주며 공감해 주는 공간을 마련해 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앞으로 YWCA 상담센터가 잘 운영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남양주YWCA가 되길 바란다.

(사)부천YWCA

임행심 사무총장

전쟁을 끊고 평화를 잇다, 부천 평화로 인증샷캠페인



(사)부천YWCA는 6월25일(화) 부천평화로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해 부천시청역 사거리에서 '전쟁을 끊고 평화를 잇다'라는 평화통일 메시지를 담은 한반도 지도의 피켓을 들고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부천YWCA 이사회에서 직접 제작한 평화 염원 한반도 지도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편, 부천YWCA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 통일문화제에서는 '부천평화로 인증샷'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부천평화로 인증샷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면 부천 곳곳을 평화로 연결하는 부천평화 지도(BPZ: bucheon peace zone)가 완성된다. 또한 8월 14일(수) 부천마루광장에서 열리는 8.15통일음악회에서는 부천YWCA 여성 어르신 합창단이 평화의 노래를 선보였다.

(사)성남YWCA

장옥현 사무총장

여가부 아이돌봄 양성교육



(사)성남YWCA 6월 10일(월)부터 7월 10일(수)까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경기 여러 지역에서 총 20명이 참석해 120시간 과정(16시간의 현장실습 포함)의 수업을 진행했고 수강생 모두 수료했다. 이론·실기교육에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현장실습(유아교육기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료를 마친 교육생들은 민간-공공영역에 취업이 가능하므로 이후 각 지역의 가족센터나 YWCA를 비롯한 민간아이돌봄단체 등에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또 9월에는 경력자 과정이 추가로 계획되어 접수 중에 있다.

(사)수원YWCA

조성주 간사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지구공유데이'



(사)수원YWCA는 6월 15일(토), 지역사회와 함께 차없는 도로-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지구공유데이'를 회관 앞마당에서 진행했다.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탄소중립실천운동을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나아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다회용기, 텀블러 그리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여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든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수원YWCA는 ▲환경을 구하자! 지구안전 ▲플리마켓 ▲순환공유옷장 ▲탄소중립실천행동 ▲우유팩은 종이 아니예요 ▲생명안전 바른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션을 통해 더욱 활동적이고 알차게 구성했으며 안코사회적협동조합, 마을살이사회적협동조합, 수원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디딤돌 동아리 아름창작소와 함께했다.

(사)안산YWCA

이체리 간사

2024 방과후 공유학교 '그린스마트 환경학교'



5월 18일(토) 오전 10시, 안산YWCA 교육장에서 지역 내 초등학생 3~6학년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린스마트 환경학교'를 개강했다. 본 교육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방과후 공유학교 사업으로 1, 2학기 각 10회차 수업으로 운영된다. 그린스마트 환경학교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정보의 활용이 익숙한 Z세대 어린이들의 특성을 반영해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게임방식(게임피케이션)을 적용한 체험식 환경교육으로 구성했다. QR코드나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보드 게임과 체험교구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도구를 병행하는 게임피케이션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게임의 재미 요소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였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김은정 팀장

실버시민학교 1기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는 6월 7일(금)부터 7월 10일(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총 6회로 실버시민학교 1기를 진행했다. 60대 이상 12명의 실버 시민들이 노후생활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고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실버시민학교에서 배운 스마트폰 강의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해 키오스크가 있는 카페에 가서 직접 음료를 시키고 햄버거 가게에 가서 주문도 해보는 등 새롭게 배움에 도전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반기에 진행될 실버시민학교 2기에도 어르신들의 열정과 도전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의정부YWCA

권지연 간사

(사)의정부YWCA 숲속 워크숍 개최



(사)의정부YWCA는 5월 31일(금) 오후 7시부터 6월 1일(토)까지 의정부 직동 통나무집에서 '숲속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의정부YWCA에서 함께 활동하는 법인이사진과 각부 위원들, 정진아 사무총장 및 실무 활동가 등 총 15명이 이번 워크숍에 참석했다. 저녁으로 채식밥상을 함께 나누고 기후다큐멘터리를 감상하며 기후위기 속 의정부YWCA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다음날에는 회원증모발대식을 진행해 각 부서별 목표와 실천 방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 앞으로도 채식 밥상은 물론 훌러가게, 지구를 지키는 챌린지, 회원증모 활동 등 의정부YWCA만의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사)하남YWCA

김상미 팀장

쌍생송 합창공연과 소비자교육



(사)하남YWCA는 6월부터 10월까지 경로당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소비자교육과 합창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 사회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핸드폰 사용법,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하남YWCA 합창단은 '어머나', '희망의 나라로', '푸니 푸니 푸니쿨라', '고향의 봄' 등 7곡의 합창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감동적인 문화공연을 선사했다. 하남YWCA 이강숙 회장은 "소비자교육과 합창공연을 관람하는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합창단원들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팀장

충청남도협의회 탈핵기후생명 워크숍



탈핵기후생명 운동의 일환인 충청남도협의회 탈핵기후생명 워크숍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충남이 중심'이라는 주제로 7월 19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논산YWCA에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은 논산YWCA, 천안YWCA 이사 위원, 자원활동가 실무자 등 27명이 참석했으며, 천안Y 이혜경 회장의 개회기도와 논산Y 전

영자 회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됐다. 이후, 한국YWCA연합회 최수산나 시민운동국장이 '성평등 관점으로 보는 YWCA탈핵기후생명운동' 강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젠더적 접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특강을 진행한 충남 에너지전환네트워크 박기남 운영위원장은 탈석탄 이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모둠별 논의로 이어진 2부 워크숍을 통해 충청남도, 의회, 시민사회 각각의 과제와 역할을 도출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역 안에서 연대를 조직화 할 방법을 모색했다. 또한, 탈석탄으로 가는 전환의 목소리를 내도록 목적과 방법을 명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십자가, 평화가 되다" 대전YWCA 십자가전시회



(사)대전YWCA는 6월25일(화)부터 7월8일(월)까지 대전YWCA 4층 대강당에서 '십자가, 평화가 되다'를 주제로 십자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십자가 전시회는 평화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김홍한 목사의 다양한 십자가 작품들을 선보였고, 전시회가 시작되는 6월 25일(화)에는 김홍한 목사의 신앙강좌 '십자가이야기'가 열렸으며, 7월 1일에는 회원 대상으로 진행된 '십자가 목걸이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전YWCA의 중점과제인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작품을 통해 대전 시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평화와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전시회 수익금은 팔레스타인 난민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난민지원 올리브나무심기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제천YWCA

김미경 팀장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세상을 살리는 손'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세상을 살리는 손'을 제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의 결합으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일상에서 폐기되거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재료들의 재활



용을 통한 가치 재창조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녹색소비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함으로써 여성들이 주도하는 친환경적 삶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한다.

(사)청주YWCA

한기연 팀장

청주YWCA '꿈 찾기 프로젝트' -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사)청주YWCA는 지난 7월 9일(화) 제59회 창립기념행사를 맞아 '꿈 찾기 프로젝트' 선정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년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장학금을 지원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올해는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도전할 청년그룹 4개 팀을 선발했다. 나인어클락(이유진, 김주은, 김주리), 지구지킴이(강진선, 신채은, 장지윤), 환경여전사(김나연, 최주아), WET(이민영, 박민성, 조민규, 진가영)의 총 네 그룹이다. 나인어클락은 '우리의 의식주, 지구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지구지킴이는 '지구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환경지킴이 챌린지를, 환경여전사는 '2명이 쓰아올린 공기'란 주제로 기후위기영상 제작을 통해 환경운동 참여 촉진을, WET는 'Walking Eco Trip'이라는 이름으로 걷기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 청년 서포터즈로 활동할 예정이다.

꿈 찾기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를 시작해 올해 9회차를 맞이한 청주YWCA의 대표적사업이다.

(사)청주YWCA

이현주 국장

충북도협의회 탈핵기후생명 워크숍 - 방사능오염수, 우리의 먹거리는 안전한가



6월 18일(화) 오전 10시, 청주YWCA 3층 강당에서 '방사능오염수, 우리의 먹거리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충북도협의회 탈핵기후생명 워크숍이 진행됐다. 충주YWCA, 제천YWCA, 청주YWCA 등 32명의 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혜정 한국YWCA연합회 탈핵기후생명위원회 위원이 '방사능 오염수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통해 김혜정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녹아내린 핵연료의 위치, 모양, 상태 등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저지를 포함한 우리의 식탁, 아이들의 급식에 오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통해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오염수의 위기를 다시 한번 마주하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충북에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탈핵운동의 방향을 정립하며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권역

(사)거제YWCA

박숙혜 간사

(사)거제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시작



지난 6월 20일(목) '24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유해환경 OUT!'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열고 옥포고등학교에서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옥포고등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홍보물품과 함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감시 및 신고 고발 활동 ▷청소년의 보호 선도 ▷업주 및 지역 주민 계도 ▷학교 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 감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모니터링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시정 건의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귀원 회장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김해YWCA

이지현 사무총장

조찬기도회 후 환경 캠페인 진행



(사)김해YWCA는 6월 5일(수) 김해시기독교연합회 임원 목사님들과 김해YWCA 이사 및 직원이 함께 모여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김해시의 교회와 YWCA가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했다. 이어,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부스로 참여해 130여 명의 시민들과 환경을 살리는 운동캠페인을 진행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환경수업과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김해YWCA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환경과 복지, 교육과 돌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사)대구YWCA

정필선 간사

환경을 위한 특단의 조치, '미(未)녀(女)들의 수많은 다이어트' 진행

(사)대구YWCA는 시민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실천운동가 양성을 위한 '미(未)녀(女)들의 수많은 다이어트'(이하



미수다)를 진행했다. 미수다는 기후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사전에 모집된 기후행동, 서포터즈단을 대상으로 6월 18일(화) 매주 화요일마다 4주간에 걸쳐 환경 아카데미를 열었다. 환경 아카데미는 전기(에너지)-냉장고(먹거리)-리류 다이어트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일상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참가자 스스로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후 위기 대응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카데미다.

환경 아카데미 수료 후 7월 16일(화) 개최된 성과 공유회에서는 활동 사례공유, 우수실천자 시상, 아나바다 공유타, 냉장고를 부탁해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서포터즈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서포터즈들이 주체적으로 기후행동에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다짐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마산YWCA

강현영 간사

(사)마산YWCA 환경의 날 기념 아나바다 장터



(사)마산YWCA는 6월 5일(수), 화관 마당에서 환경의 날을 맞이해 '자원을 살리다'는 주제로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다. 상반기에 처음 진행된 장터는 안 쓰는 새 물건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기부받아 나눔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옷, 가방, 생활용품 등을 분류해 EM 제품과 함께 판매했으며, 아름다운가게 자선점에서도 참여해 더욱 풍성한 장터가 됐다. 마당 옆에선 버려진 일회용 컵에 무순 심기 등 친환경 체험부스를 진행해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환경의 날에 진행한 아나바다 장터는 자원순환 실천 다짐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마련된 수익금은 결식노인을 위한 나눔 급식소, 청소년 장학금 등의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마산YWCA 운영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고준위 방사선편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 천막 농성 진행



(사)부산YWCA를 비롯해 1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선편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청 앞에서 5월 23일(목)부터 17일간 ‘고준위 방사선편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진행하였으며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과 함께 시민단체 34개 단체가 1인 시위 릴레이를 이어 나갔으며 부산 시내를 달리는 버스에 “안전한 도시 부산! 노후된 원전 이제 그만”이라는 홍보 문구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는 등 안전한 생명세상을 바라는 활동을 진행했다.

(사)사천YWCA

김향미 팀장

탄소중립전문가 양성과정



(사)사천YWCA는 5월부터 7월까지 총13회로 탄소중립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양성과정은 일반시민 대상이 아닌 지역단체 맞춤형, 여성리더십 실천 방향으로 20명의 탄소중립전문가 강사를 양성한다. 사천YWCA 탄소중립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은 ‘탄소중립과 우리의 일상’이란 주제로 지역 시민과 아동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생활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양산YWCA

성정미 간사

(사)양산YWCA 회관이전예배 & 회원모심지기 워크숍

(사)양산YWCA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회관을 이전했다. 회관 이전



을 축하하기 위해 5월 29일(수) 실무 활동가와 자원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순명기 목사의 ‘겨자씨 한 알’이라는 이라는 말씀으로 회관이전예배를 드렸다. 이어 2024 회원모심지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양산YWCA는 매년 회원모심지기 워크숍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회원모심지기 워크숍에서는 ‘당신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표어로 2024년 양산YWCA 회원 모시기 전략계획 발표 및 토론과 발표 순서가 진행됐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제9회 울산YWCA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제9회 울산YWCA여성합창단(대표 김태경, 지휘자 김희정) 정기연주회가 6월 8일(토) 17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울산YWCA여성합창단은 1982년 6월에 창단해 울산YWCA와 역사를 함께하는 대표적인 울산 여성합창단이다. 음악적 기량 향상을 기반으로 선교,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생명세상의 밑거름을 만들고자 창단됐다. 2018년 8회 정기연주회 이후 약 6년 만에 개최된 이번 공연은 ‘감사&은혜’의 주제에 맞게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무대별로 각각의 테마 ‘YWCA를 돌아보며’, ‘인생을 돌아보며’, ‘합창단을 돌아보며’로 꾸며졌다. 또한 라온필하모닉 파르렛 앙상블과 루엔 남성중창단이 특별 출연해 무대를 빛냈다.

(사)진주YWCA

유인주 간사

(사)진주YWCA 활동응원 하루차집

(사)진주YWCA는 7월 4일(목) 진주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 1층 실버



카페에서 활동응원 하루차집을 열었다. 올해 하루차집에서는 직접 담근 자몽, 레몬청과 실버카페 내의 어르신 전문 바리스타가 내리는 커피를 비롯해 로컬푸드인 오미자 재료를 이용한 차와 다과로 손님들을 대접했다. 하루차집 한 켠에는 진주YWCA 응원포토존을 설치해 차집을 찾은 손님들이 (사)진주YWCA의 활동에 대해 알고, 각 활동들의 소개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응원 인장을 찍도록 했다. 또한 기후대응 환경활동 중의 하나인 EM을 활용하는 부스를 마련하여 EM 관련 물품과 각종 생활물품을 함께 판매했다. (사)진주YWCA의 활동을 알리는 것에 목표를 둔 이번 하루차집에는 지역민과 회원, 연대단체 많은 분들이 방문해 진주 지역에서 YWCA 활동을 응원했다.

(사)진해YWCA

김방현 간사

제1차 기후가족걷기대회 연대



(사)진해YWCA는 5월 25일(토) 오후 창원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여 실시한 제1회 기후가족걷기대회에 참가했다.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집결하여 상남분수 광장을 경유한 뒤, 다시 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기후위기에 대해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족 단위의 참여로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지금 당장’ 행동하자고 결의를 다지고 무엇보다 지구평균 온도 1.5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다. 창원 여러 단체들

이 연대하여 매주 벌이는 금요캠페인의 100회차 캠페인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사)창원YWCA

하민화 간사

청소년 유해약물 모니터링



(사)창원YWCA는 2024년 청소년 유해약물 모니터링단을 출범시켰다. 유해약물 모니터링단은 5월 17일(금), ‘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와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6월 25일(화)에는 중학교·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추어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경로와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해 약국, 편의점, 슈퍼마켓을 방문 조사했고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및 신분증 확인 여부를 조사했다. 창원YWCA는 청소년의 유해약물 근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포항YWCA

이예린 부장

김치야, 여름을 부탁해!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치나눔



5월 28일(화) YWCA회관에서 ‘봉사로 이어가는 동행’ 2024 포스코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어르신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글로벌 볼런티어’는 포스코 전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자원봉사주간으로서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사)포항YWCA와 함께 ㈜포스코실리콘솔루션 임직원

이 참여하여 관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김치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지역 내 결식 우려가 있는 홀몸 어르신 50가정에 ㈜포스코실리콘 솔루션 임직원들이 함께 배추김치 5kg과 청양열무물김치 5kg, 상비약품 등을 각 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김치 만들기에 홀몸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해 세대 간의 교류 및 소통,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도움을 드리는 등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했다.

전라·제주권역

(사)광양YWCA

이효진 주임

어버이날 카네이션 드려효(孝)



(사)광양YWCA는 어버이날을 맞아 2024년 5월 8일(수) '어버이날 카네이션 드려효(孝)' 행사를 진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거동불편 재가 어르신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들 200명에게 영양식으로 구성된 특식과 카네이션을 전달하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생화로 만든 카네이션을 드려 의미가 더욱 깊었다. (사)광양YWCA는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생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광주YWCA

조승리 과장

민주평화대행진

광주YWCA 회원을 포함한 광주시민 5,000여 명이 5월 17일(금) 오



후 5시부터 1980년 5월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

민주평화대행진은 광주공원과 북동성당(광주YWCA 40명 참석)에서 각각 출발하여 5.18 민주 광장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5.18 나눔과 연대의 상징인 주먹밥을 나눠 먹고,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 출전가'를 배우며 민주평화대행진에 대한 의미를 다졌다.

(사)군산YWCA

이우림 간사

기후위기 속 인권씨앗교육



(사)군산YWCA는 탈핵기후생명운동 일환으로 기후위기 속 인권 씨앗 교육을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24년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다. 7월 15일(월) 군산시 관내 서흥중학교 1학년 전체 반 229여 명 대상으로 기후위기 속 인권씨앗교육을 진행했다. 4명의 기후위기 인권씨앗 강사님의 지도 아래 기후매직스 토리북 만들며,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 속에서 모두의 지구를 위한 실천을 한 가지씩 꾸준히 실천하는 환경지킴이의 다짐의 시간이었다.

(사)남원YWCA

임진아 간사

(사)남원YWCA 사무총장 이취임식



(사)남원YWCA(회장 노길희)는 6월 18일(화) 오후 2시 남원YWCA 4층 회관에서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20년 간 활동한 제

4대 이남진 사무총장이 퇴임하고, 최미혜 사무총장이 제5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1부 기념 예배에는 남원영락교회 강광원담임목사가 '서로가 축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남원서남교회 김희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이취임식은 남원YWCA 유영미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제주권역 사무총장들과 YWCA 관계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사무총장 이취임식으로 진심으로 축하했다. (전)남원시의회의원 박문희의원의 격려말씀을 전하고, 20여 년의 소임을 다한 이남진 이임 사무총장의 이임사와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최미혜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 인사가 있었다. (사)남원YWCA는 앞으로도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맡겨진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사)목포YWCA 2024년 Y-틴 인준식 실시



(사)목포YWCA는 6월 15일(토) 본부 세미나실에서 7개 Y-틴 동아리 지도교사, 이사, 실무자 총 75명이 함께 참여하는 '2024년 (사)목포YWCA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Y-틴 밴드동아리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기도, 목격문 낭독, 7개 동아리 인준장 수여, 회원선서, 협의회 임원소개와 한국YWCA연합회 회장상, 목포교육장상 표창 등 감사하는 자리도 함께 가졌다. 또한 5개의 학교가 참석률 100%·80%·70%이상을 달성하는 등 인준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인준식을 통해 Y-틴들은 (사)목포YWCA에 소속된 청소년 회원으로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고 YWCA 청소년운동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

(사)서귀포YWCA

현영아 간사

2024 서귀포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사)서귀포YWCA는 '2024 서귀포여성취업박람회'를 7월 5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성 구직자 및 구인기업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YWCA회관에서 개최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 연계, 현장면접, 취업특강, 면접특강, 일자리 유관기관의 취창업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이미지메이킹 등 취업컨설팅이 진행됐고,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플라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박람회는 구인기업 46곳 참여 이 중 14개 기업이 현장면접을 통해 100여 명의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박람회 이후, 구직자와 구인기업은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신선)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새일여성인턴 등 구인 기업 지원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생명의 바람, 숲을 그리다



(사)순천YWCA는 환경살림위원회 주관으로 7월 1일(월)부터 7월 5일(금)까지 몽골 은총의 숲 생태여행을 다녀왔다. '생명의 바람, 숲을 그리다' [초록미션 : 몽골편]은 10명의 자원활동가와 4명의 실무활동가가 참여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몽골은 사막화의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고 몽골 국토의 90%에 이르는 땅이 사막이나 황무지로 변했으며, 식물의 4분의 3이 사라졌다. '강물이 흘렀거나 초원이었던' 곳은 점차 사막으로 변하면서 삶의 기반들도 파괴됐다.

우리는 기후 재난 상황에서 안전할 수 없고, 우리가 미래세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재난과 생존'이라는 새로운 짐을 지우고 있음을 반성했다. 또한, 이번 생태여행참가자들은 기후재난의 절망 속에서도 창조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생명공동체로서 생태 정의를 이루는 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사)여수YWCA

설수연 간사

여수YWCA 창립 42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사)여수YWCA는 5월 23일(목) 여수YWCA 4층 강당에서 창립 42



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고만호 목사(여수 은파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과 YWCA 혼성합창단의 특송으로 1부 기념예배를 마무리했고, 2부 기념식에서는 케이크 커팅식, 이사·위원·직원 특송, 여수YWCA 골든벨을 진행했다. 특히 여수YWCA 골든벨은 이사·위원·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여수YWCA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1982년 5월 26일 조직되어 올해로 42년을 맞이한 여수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주제 아래 여성운동, 환경운동, 청소년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사)익산YWCA

강지수 간사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 '찾아가는 펍핀' 프로그램 진행



(사)익산YWCA는 6월 17일(월) 함라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 '찾아가는 펍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펍핀 프로그램은 1사 1교 결연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진행하는데 익산YWCA는 태블릿PC와 '빙고씽크머니'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게임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올바른 용돈 관리와 소비를 배우고 저축과 기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주YWCA

손예지 간사

전주 Y-틴, 기후생태교육으로 나를 성찰하며 실천가로서 다짐하다

(사)전주YWCA는 5월 18일(토), 6월 15일(토) 2회에 걸쳐 Y-틴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기후생태교육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이 기후위



기로부터 온 생태계 변화를 알고 생태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감수성을 넓히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1회차 교육은 '자연, 동물, 식물 속에 보이는 기후위기 그리고 나'를 주제로 생태계와 인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생태 변화가 만들어낸 멸종위기와 밥상, 삶의 위기를 체험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아 보았다. 2회차는 '기후위기 속 우리가 지켜야 할 생태를 주제로 식습관, 일상 습관으로 인한 탄소배출의 심각성 사례를 보며 생태계를 지켜내는 핵심종에 대해 학습했다. 교육 후에는 워크숍을 진행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주YWCA

김민지 간사

(사)제주YWCA, 해안 정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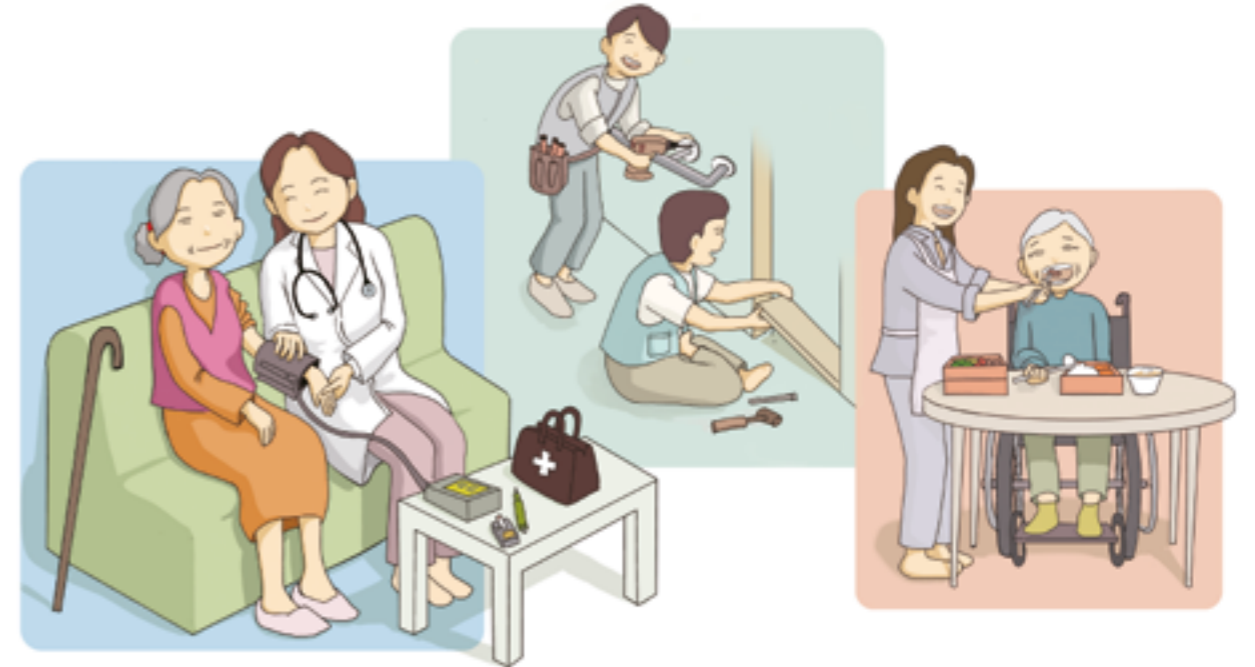
(사)제주YWCA는 6월 15일(토) 회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양해수욕장 일대를 돌며 해안정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바다와 해양을 살리자는 의미있는 활동임과 동시에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우리 환경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일깨워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진행됐다. (사)제주YWCA 정윤희 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플로깅 활동이 진행된 오늘도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달리 아주 무더운 날씨였다"며 "우리 스스로가 바뀌지 않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후변화는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 2023년 7월 ~ 2025년 12월



주요 연계 서비스

<p>보건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진료 • 방문구강관리 • 다제약물관리 • 건강증진 •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 만성질환관리 • 호스피스 	<p>장기요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재택의료센터 	<p>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청소관리 • 병원동행 	<p>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 • 케어안심주택
--	--	--	---

<p>시범사업 참여 지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서구 • 광주 북구 • 대전 대덕구 • 대전 유성구 • 경기 부천시 • 경기 안산시 • 충북 진천군 • 충남 천안시 • 전북 전주시 • 전남 여주시 • 경북 의성군 • 경남 김해시 <p>※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년 3월) 2026년 3월, 통합지원 전국 시행 예정</p>	<p>시범사업 참여 상담 신청</p> <p>시범사업 해당지역 관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보건소,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p>시범사업 안내 및 문의</p> <p>지역별 문의처는 QR코드로 확인 (시범사업 안내 게시판)</p>
--	--	---